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木)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

伊太利制裁論漸次具現化

伊『에』戰爭勃發時 經濟封鎖斷行?

二十一日英國外交委員會의 伊에 對한 强硬決意

【倫敦二十一日發聯合】倫敦避暑地로부터 歸京한 볼드윈首相은 二十一日午後五時부터 다우닝街十番地의 官邸에 호어外相、이든無任所相、맥도날드樞相、챔버렌藏相과 싸이먼內相의 參集을 求하야 緊急外交委員會를 開催하고 首相司會下에 開會될 全員閣議의 議題에 對하야 豫備的協議를 遂하엿다 全員閣議에서는

一、巴里會商에關한 이든無任所相의 報告

一、聯盟理事會에 臨할 英國政府의 態度

一、武器輸出問題

의 三項目이 上程되엿는데 이든 無任所相의 說明에 基하야 以上 各項目에 對하야 檢討를 加한結果 外交委員會는 情勢의 重大化에 鑑하야 斷乎한 方針을 確立하야 二十二日午前의 全員閣議에서는 끗까지 聯盟規約을 堅持할 것을 提議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다 聯盟規約을 堅持하는것은 刻下의 情勢에서는 要컨대 制裁規定의 援用에 不外하므로 英國政府는 뭇솔리니首相이 끗까지 現在의 立場을 固執不讓하고 黑人帝國討伐의 師를 起할境遇에는 聯盟理事會의 同意를 어더 드듸어 最後의 手段으로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經濟封鎖를 斷行할 決意를 굿게 하엿다고 解釋된다 이리하야 外交委員會는 大緊張裡에 審議前後 二時間에 午後六時五十五分 겨우 散會하엿다

事端發生豫想코

地中海艦隊의 制覇準備를 協議

英內閣과 海軍當局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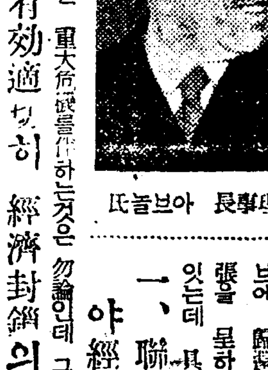
【倫敦二十一日發】二十一日의 英國緊急閣議後 有力側에서 聞知한바에 依하면 英國內閣은 海軍當局에 對하야 英國地中海艦隊가 重大한 事變이 突發할境遇에 이에 處하는데 充分한準備가 整頓되어잇는지 그與否를 照會한데 對하야 海軍側에서는 地中海作戰의 基本이 伊太利海軍과의 共同動作을 前提로 組織되엿을 事하야 萬若重大事變이 伊太利와의 敵對行爲를 意味하는것이라면 地中海艦隊의 勢力으로서는 決코 制覇가 不可能하다는 旨를 答申하엿다고하는데 이로써 對伊制裁手段의 發動에는 큰技術的 探算의 變化가 生하게된 셈이다 倫敦外交界에서는 英國內閣의 에디오피아紛爭對策이 艦隊行動에 對하야 海軍當局과 協議를 行한다는 程度까지 深入한 事實을 重視하고 잇다 假令 二十一日의 緊急閣議에서 佛國과함께 今後도 可及的 平和的 處理의 努力을 中止하지안을것을 議決한다하더라도 英國의 最後手段에 關한 考慮가 如何히 包含되어잇는以上 問題는 決코 日中紛爭과 軌를 가티하리라고생각할것은 아니라고한다

自治領代表招致 政府方針을說明

【倫敦二十一日發聯合】호어外相은 二十一日正午 外務省에 濠洲代表、加奈陀代表、뉴질란드代表、愛蘭代表와 埃及公使等 各自治領代表를 招致하고 伊에 兩國紛爭에 對한 英國政府의 方針에 對하야 詳細說明을 加한後 右方針을 各自自國政府에 請訓하도록 要請하엿다 商議는 約一時間十五分에 亘하고 各代表는 外務省退出後 卽時本國政府에 請訓하얏다고 解釋된다

聯盟當局에서도 制裁 規定適用考慮

規約十六條를適用、經濟封鎖가唯一策


聯盟理事長 아브놀氏

海軍國發動을慫慂

【쥬네브二十一日發聯合】巴里會商의 決裂로 歐洲政局은 極度로 緊迫을 告하고 國際聯盟은 空前의 破滅에 當面하게 된結果 各避暑地에잇던 聯盟事務局員은 모다쥬네브에 歸還하야 聯盟理事會의 開會를 二週間後에 압두고 國際政情은 極度의 緊張을 呈하고잇다 事務當局은 聯盟의 權威擁護를爲하야 制裁規定適用을 考究하고잇는데 具體案은 如左하다고보인다

一、聯盟은 規約第十六條를 援用하고 伊太利에 對하야 經濟封鎖를 適用할박게업다

一、經濟封鎖는 重大危機를 作하는것은 勿論인데 그것은 스에즈運河에 對하야 伊太利로 하여곰 運河地帶에 出入을 禁止할 에依하야 有効適切히 經濟封鎖의 目的을 達할수가 잇슬것이다

一、右制裁實行을 爲해서는 海軍國의 發動을 求하지안으면 안될터인데 이國際緊急法規는 英佛兩國에 對하야 經濟封鎖進行의 全權을 委任하는것이 妥當하다

伊制裁에關하야 英、米國協力要求

【電通倫敦二十一日發】二十日英一邑米代理大使가 長時間에 亘하야 英國外務省에서 호어外相과 아서一야 會談을 行하야 多大한 注目을 끌엇는데 同席上에서 英外相은 아서로米代理大使에게 對하야 英國政府는 二十二日 緊急閣議를 開하고 根本方策을 審議할터이니 米國政府도 伊에 開戰의 危險이 切迫한 이때에 同問題에 對한 再檢討를 해주기를 바란다 英國政府로서는 巴里會商決裂의 結果 끗까지 强力한 聯盟 支持를 嚴守할 決意이다 라는뜻을 明白히하엿다고한다 그리고 英國政府의 要求는 聯盟의 聯盟制裁規定適用과 戰爭條約에 關한 提議는 行하지아니하엿다고 하고잇스나 當地外交界方面에서는 英國은 米國에 對하야 聯盟이 伊太利에 財政的經濟的壓迫을 加하려고할 境遇에 米國은 中立國으로서의 權利主張을 中止하고 又는 反聯盟國이되는 國家와 交通함에 依하야 聯盟의 制裁를 無効케 함과 如한 行動을 取하지 안키를 要求하엿다고 밋고잇다 如何든 米國政府는 아서로 代理大使의 報告를 기다려 態度를 協議할것으로 보이는데 米國의 與否는 英國의 對伊强硬政策의 成否에 重大關係를 가지게되므로 米國今後의 態度는 자못 注目되게되엿다

에디오피아政府 全軍總動員決定

【電通倫敦廿二日發】데일리·메일紙는 아디스아베바 特電으로 에디오피아政府는 對伊軍事行動이 不得已한것을 豫想하고 全國軍隊에 對하야 總動員令을 發하기로 決定하엿다는旨를 報道하엿다

에國政府重大會議

【電通아디스아베바廿一日發】에디오피아政府에서는 二十一日 王宮에 閣僚軍首腦部를 全部招集하고 時局對策의 重大會議를 開하엿다 그內容에 對해서는 何等 公表되지안햇스나 軍事的行動의 準備를 進行케되엿다고 信憑되다

汪氏復職에關해 聲明發表

【電通南京二十一日發】汪精衛氏復職決定에 關하야 二十一日夜 聲明을 發表할 豫定이던바 二十二日 中央政務會議終了後 發表하기로 延期하엿다

話題解說 汪兆銘

◇ 親日的 政策으로 歐米派의 排斥을 바더 下野를 決意하고 辭表까지 提出하야 中原政界에 센세이슌을 捲起하고잇던 國民政府 行政院長兼外交部長 汪兆銘氏는 廬山會議其他 各部의 留任決議가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依然 强硬히 辭意를 表明하고잇더니 二十一日·南京서 蔣介石氏의 留任懇請으로 드듸어 辭意를 飜意하엿다는 外電이 잇다

◇ 汪兆銘(字는 精衛)氏는 廣東省番禺縣人으로 一八八五年生이다 孫文의 首弟子의 한사람으로 일즉이 日本에 留學하야 法政大學을 卒業하고 中國同盟會의 機關紙民報의 記者로서 革命思想을 鼓吹하엿다 一九一一年 淸朝攝政王載灃의 暗殺을 企圖하다가 逮捕되야 死刑을 바덧스나 肅親王이 그才를 可惜히녀겨 減刑되엿던바 第一革命成功後 釋放되엿다

◇ 第二革命後 汪氏는 佛國에 亡命하야 社會學及文學을 研究하고 一九一六年 歸國하야 國民黨의 多年間 失敗를 考慮하고 農民大衆과의 協同을 形成하야 被壓迫階級을 代表하는 革命戰線을 組織하는一方 國民政府(武漢政府)를 專心注力하엿다 一九二六年 蔣介石氏가 쿠데타를 敢行하고 反動的으로 轉向할 때에 그는 依然 左派陣營을 堅守하야 結局 佛國에 亡命하엿다가 一九二七年 武漢政府와 南京政府가 對立하엿슬때에 다시歸國한後 共産黨領袖 陳獨秀氏와 聯名으로 宣言書를 發表하야 蔣氏一派의 反動을 痛駁하엿다

◇ 그러나 農民及勞働者自身의 運動이 發展되어 各地에 騷擾運動이 激化하자 兩派의 合作은 到底不可能하게되엿고 同時에 武漢政府內의 所謂 「小뿌르조와」는 거이全部 右翼的轉向을 보게되엿다 이때에 그는 南京側 先鋒와 合作하기로 하고 一九三二年初 孫科氏의 辭任의 뒤를이어 行政院長의 要職을 占하게되고 爾來 蔣汪合作으로 南京政府의 中心勢力을 形成하여온것은 萬人이 周知하는바 事實이어니와 時勢의 變遷이 甚하다할는지 汪氏의 變節이 甚하다할는지 昨日에는 그가 熱하던 左翼的 革命 政治家가 今日에는 가장 保守的 親日派로 指目되엿슴을 그누구 豫想하여스랴

汪氏辭職騷動은 蔣獨裁權確立方便?

兩巨頭의 劇的演出

【電通上海廿一日發】廿一日南京의 蔣汪兩巨頭會見에서 汪精衛氏는 期待한바와가티 辭意를 飜意하게되엿는데 이結果 蔣汪兩氏의 聯立政權은 드듸어 그基礎를 鞏固히하야서 汪精衛氏도 從來의 對日政策을 그대로 持續하게되엿다 卽 今回의 汪氏의 辭意表明은 過去三年間에 及하는 政權擔當에 依하야 그동안 對日問題를 中心으로한 外交問題及對西南派等의 對內問題에 關하야 國內反對派의 猛烈한 攻擊을 입어 滿身創痍의 狀態에 잇섯스므로 汪氏自身이 偶然 身病이 惡化한것을 口實로 辭意를 表明하야 汪政權의 信任을 國民에게 問하는 態度를 取한것이다 그러데 汪氏는 辭意表明에 압서 蔣介石氏와 미리 諒解를 遂한 形跡이 잇서서 말하자면 今回의 辭任騷動은 反對派의 策動에 一擊을 與하야 蔣汪聯立政權을 더욱 强化하려고 兩巨頭가 만든 한演劇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副産物로

一、蔣氏를 背景으로하고 汪氏를 首班으로한 現內閣의 日本接近政策이 形式的이나마 國民黨首腦部及 中國官民 多數의 支持를 어더 當分間 對日政策에 變更이 업슬것이 確認되엿고

二、一方國民政府部內의 孔祥熙、宋子文兩氏를 中心으로한 歐米派、孫科氏를 中心으로한 一派、居正氏를 中心으로한 西南派等의 汪精衛派를 倒하고 後繼內閣을 세우려고 虎視耽耽한것이 偶然 暴露되엿고

三、中央黨部 從來의 政府指導權力이 不少하게 銷하게된것의

等인데 이우에 明確히 되것은 各派 各樣의 策動에도 不拘하고 蔣氏의 생각대로 中國의 政權이 左右되어 蔣氏의 獨裁權이 全然 確立되엿스므로 換言하면 辭職騷動은 蔣氏의 獨裁權確立으로서 結末을 告하엿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는 日中關係에 對해서도 가장 注視할 事實이라고 注目되고잇다

크립퍼機 미島에歸還

【電通미드웨이島二十一日發】太平洋橫斷定期航空路開拓試驗飛行의 途上에잇는 汎米航空路會社의 크립퍼機는 最終目的地인 웨의島를 出發하야 歸還飛行의途에 올랏는데 二十一日 無事히 미드웨이 島에 到着하엿다

新爆擊機試驗飛行 世界的新記錄樹立

【電通시아틀廿一日發】當地보잉航空會社製作의 新爆擊機는 시아틀 데이톤(오하이오州)間 二千百哩의 試驗飛行을 行하야 平均時速 二百三十二哩이란 世界新記錄을 樹立하엿다고發表하엿다

人事·集會

▲井上遞信局長 二十二日午前七時四十分 京城驛發 仁川에 赴하야 德積島漁場을 視察하고 同夜歸任 다시 二十三日 午後十一時發列車로 元山、咸興方面에 約一週間豫定으로 出張

▲古庄逸夫氏(光州稅務監督局長) 新任人事次二十二日來社

▲景山宜景氏(農林局農政課長) 同上

▲金根鎬氏(江華實業家) 銀行支店誘致運動次二十二日入京典東旅館에

▲鄭台亮氏(全州製絲組合理事) 組合用務를帶하고昨日入京貫鐵洞高麗旅館에

八面鋒

◇ 京城市內의 傳染病, 날마다 十名 二十名의 新患者를 내인다.

◇ 豫防藥먹고서도發病, 病院私食 대는집에서도發病, 病菌이 無人之境처럼活躍.

◇ 秋風이 건듯불면 [illegible]

◇ 은 何事로이든일이나, 生死가 달리니 危險千萬.

◇ 惡死好生은 人之常情이지만 살기爲하야는 衛生이第一.

◇ 그러나, 一個人의 衛生만으로는 惡疫의威勢를 꺽기는困難한노릇.

◇ 近代都市生活에 잇서서는 아모리하여도 市民全體의 共同努力이 必要.

中立維持法案 米上院서可決

【電通華盛頓廿一日發】米國上院은 二十日 外交委員會提出의 中立維持法案을 卽時審議可決하야 이것을 下院에 回附하엿다 下院에서도 有力한 通過促進運動이잇스므로 今期議會中에 立法化될 希望이充分히 認定되게되엿다 그런데 上院委員會로부터 報告된 同法案의 要項은 如左하다

一、交戰國全部에의 武器軍需品輸送禁止

二、米國諸港을 交戰國潛水艦根據地로 使用하는것의 禁止

三、交戰國船舶에 便乘하는米人에 對한 身分安全保障不供與(危險은 自己負擔)

四、武器軍需品製造業者에 對한 登錄制實施

滿洲國治外法權撤廢와 在滿朝鮮人의 關係

(六) 金麟伊

二、治外法權撤廢와 敎育權

治外法權中에서 行政的部分부터 몬저 撤廢하야 此를 滿洲國에 移讓하게된結果 明年부터는 滿鐵附屬地外의 日本人이 滿洲國課稅權에 服從하게되며 伊하야 附屬地의 滿鐵公課도 滿洲國에 委讓하야 順次로 上述의 諸行政을 滿洲國의 손으로 하자는것이다 其中 가장 困難한것은 敎育問題로 當分間은 繼續하야 滿鐵의 손으로 處理하되 經費의 一部를 滿洲國에 負擔식히는 方法을 取한다고하다 滿鐵公課라는것은 附屬地의 敎育、土木、衛生、郵便、農商工의 諸設施에 關한 經費 卽 滿鐵沿線 六百九十四哩의 兩側을 平均 六十二哩의 幅을 가지고 滿洲의 中原을 貫通한 滿鐵附屬地의 行政費로 滿鐵이 年額約一千萬圓을 負擔하는外에 附屬地居住의 日本人과 朝鮮人에게 滿鐵의 公課라는 名目下에 一種의 租稅를 約 五百圓 밧는것이 잇스니 이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런데 滿鐵이 朝鮮人을 爲하야 施設한 敎育機關으로는 安東、奉天、撫順、哈爾賓의 四處에 各其 普通學校가 잇서 總督府의 一部補助를 바다 經營한다 其一 朝鮮人을 全部 歸化식힌後에도 此普通學校를 그대로 滿洲國에서 存續經營하며 又는 人口의 增加에 따라 擴張할터인가 또歸化問題는 姑捨하고 治外法權을 全部撤廢한後에 滿鐵은 行政權도 移讓하고 公課도 撤廢한 後에 果然 普通學校를 經營할가 滿洲國의 現在對朝鮮人 政策을가지고 推斷한다면 或 歸化後이라도 朝鮮人을 爲하야 特別한 敎育을 實施하리라고 信憑할수 업스며 또後者의 境遇에는 滿鐵에서 誠實치안흘것이 確實함으로 結局 滿洲國에서 若干의 補助를 바다가지고 民會에서 經營하게될터이니 在滿朝鮮人은 滿洲國에 各種稅金을 바치고도 子弟의 敎育만은 따로 出費負擔하여야될 境遇라면 敢히 이二重負擔을 勘當하여갈 수가 잇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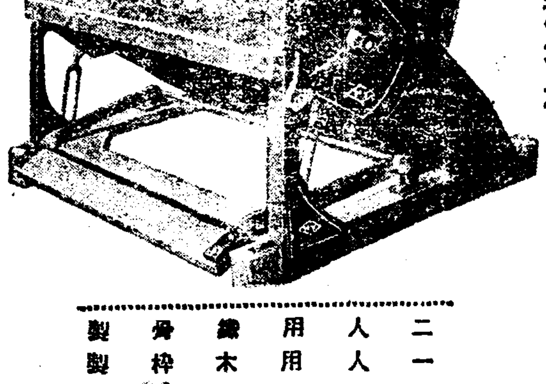
現在 滿洲에 잇는 近二百萬朝鮮人의 敎育機關으로는 男女中等學校가 四校、普通學校라는 名稱을 가진 私立初等學校가 約二百校 其外에 改良書堂으로 普通學校 비슷한 것까지 合하야 初等敎育機關은 二百九十三校로 其學級數가 四百四十四學級에 生徒數는 三萬五千 二百二十七名이 現在에 잇다 그런데 此等學校에 對하야 總督府 에서는 年額約 二十二萬圓의 補助를 하야 民會 宗敎團體等에서 艱辛히 經營을 하여간다 그럼으로 經濟的으로 아주 貧弱한 在滿朝鮮人의 現在敎育費負擔도 莫大한셈인데 今後 또 滿洲國에 納稅까지한다면 그들은 現在와가티 貧弱한 敎育機關조차 維持하여가기가 困難할것이다 新興國家로서의 滿洲는 各種施設의 擴充에따라 每年新財源의 捻出을 함에잇서서 新稅의 賦課와 租稅의 增徵을 하지안코서는 엇떠케할수업는것이 滿洲國現財政狀態임에야 將次 前記와 가티 不合理하고 矛盾된 二重負擔을 하는 經濟的 政治的關係下에서 在滿朝鮮人은 充分한 發展은 못한다하더래도 到底히 生計를 支持하여갈수가 업슬것이다

大體朝鮮人學齡兒童數는 얼마나 되는가 在滿同胞에 關한 統計는 하나도 精確한것이 업다 總督府에서도 特別히 統計를 作成치안코 外務省의 不正確한 統計數字를 그대로引用하게되야 在滿朝鮮人의 實數는 幾何인지 正確한 數字를 알수업다 官用統計와 民間統計의 中庸을 取하야 百五十萬의 人口를 標準으로 삼아 在滿朝鮮人子弟中의 學齡兒童을 總督府의 學齡兒童推算方法 卽 人口千名에 對하야 百三十五人式으로 推算한다면 學齡兒童은 二十萬七千人이 되다 그런데 現在의 就學兒童數는 不完全한 書堂에 就學한兒童까지 合하야 三萬五千人이라니 約六分之一이 겨우 就學한셈이다 그러나 萬一 六年制의 普通學校就學兒童數만을 計算한다면 前記 滿鐵經營의 四普校生 二千餘名外의 若干의 私立學校生徒밧게 업다하니 中等敎育은 말할것도 업고 國民의 基礎敎育인 初等敎育의 現狀이 이가티 貧弱한 狀態라한다

勿論 敎育問題外에도 治外法權撤廢後의 在滿朝鮮人에게는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바가 만치만 上述한바와가튼 寒心한 敎育狀態로 보아 治外法權撤廢問題中에서도 가장 困難한 問題라는 敎育問題에 對하야는 總督府當局의 緊急하고도 適切한 處置와 對策이 잇서야 하겟다 在滿朝鮮人의 敎育問題에 對하야는 다른 機會에 따로 詳論하고저 이만하고 本論을 마친다(終)

農林省御推奬

宮澤式稻扱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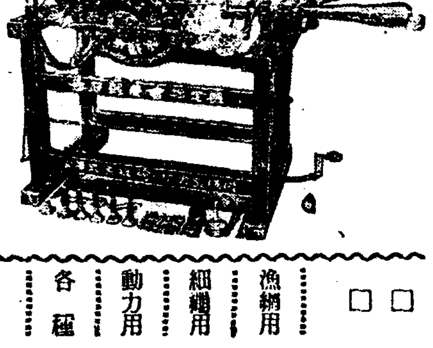


製造原價販賣開始

稻扱機 製繩機 除草機 藥打機

製作發賣元

宮澤式製繩機



二人用 一人用 鐵木製 骨枠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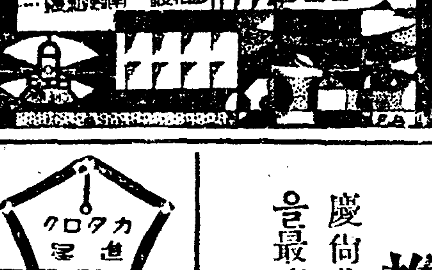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漁網用 細繩用 動力用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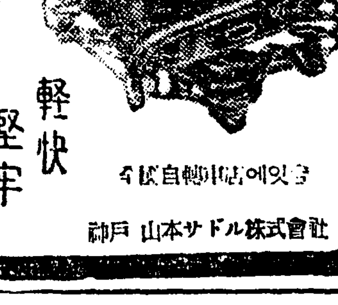
兵庫縣加古郡天滿

宮澤農具製作所

振替大阪八六六九一番



グレート印 自轉車用 스프링사도루



輕快 堅牢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推薦廣告

慶尙北道會議員立候補者 李鍾淳君

을最適任者로서推薦함

榮州郡有志一同

カタクロ 進呈

金ペン及萬年筆의 仕入은 確實한 製造家의 擇擇이 肝要、絶對品質의 優秀 價格의 低廉을 자랑하는 名古屋唯一의 製造問屋

名古屋市南區高藏 森音製作所

9月豪華作

8-53 流行歌 울니러왓던가 / 新民謠 鮮朝狂金黃

8-54 양산美人

8-55 短歌 玉樓紗窓 / 春香傳 磚·石 듸

8-56 流行歌 南浦의집웅밋 / 勝利의거리

8-57 歌謠 방아타령 / 開城난봉가

朴世鳴 申綠鳳 下眞紅 鼓長·丁元燮 金玉葉 李眞紅

태평레코-드

物理醫療師

生活線第一步

最新最高 物理醫學 責任養成

院長은 我國綜合電醫의 創始者로서 東京電醫學校學長이고、斯界電醫에 有名한 巨頭이다

永久的師範機의 資格을 獲得하야 衆人의 尊敬과 生活의 安定을 得할者는 必히 今期에 入學하라 不久에 總督府令發布後에는 資格證書로서 自由開業이 不許할것이다 本院의 資格證書로서 自由開業이되며 永久資格인 養成所는 本院以外에는 업다

◎來院하면 一目明瞭 (希望者는 案內書를 請求하라(郵送))

認可京城高等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

平壤秋季競馬大會

場所 船橋里新設競馬場

時日 八月廿三日(金)廿四日(土)廿五日(日)廿六日(月) 八月廿九日(木)卅日(金)卅一日(土)九月一日(日)

勝馬投票券、單勝、複勝共三圓

主催 社團法人 平南レース俱樂部

柔肌에

땀띠、헌데 가려운데 오카

オーカ

大木五臟圓本舖 大木合名會社發賣

痔 疾 에는 오세로 치질藥으로

全國各藥에잇슴

八月二十日より短期特別大公開

大都超特作現代猛闘大活劇

ハヤブサヒデトプロダクション

原作……谷逸馬 監督……太田

ハヤブサヒデト猛闘主演

肉彈の王者

メトロゴルドウイン超特作

クラーレンスブラウン監督

ルーペ・ベレツ ローレンスチベット 共演

キューバの戀唄

椰子の葉茂る南海キューバに芽生えた戀と情熱の圓舞曲人の心に胸を搏つ甘美なローマンス

大都巢鴨超特作時代劇原作指揮河合德三郎監督石山稔 江田譲二……主演映畫

春秋やくざ音頭

やくざ仁義に血の花咲かせた……刀さげて渡る涙のやくざ音頭

櫻井町 大正館

旱水災復舊救濟費 各道要求千萬圓

支出豫想額은五百萬圓程度

土木救濟勞賃不過二百萬圓

금년여름의 평남북 강원도 황해도의 수해와 전남북의 한해(旱害)등 재해는 작년의 대수해보다 사실상더심한 참상으로 이에대한 리재민의 구제는 매우 긴급한 문제로되야 각도에서는 이미 리재민구제금과 재해의 도로교량등의 복구사업비등에대한 제이예비금의 지출또는추가예산의 청구를 하게되야 이미제이 예비금의 지출요구를 하여 온것만도 평북의 오백만원을 필두로 전남의 삼백만원 강원도의 일백오십만원과 황해도와 전북의것을 합하면 일천오백만원을 돌파하엿다 그런데 이에대한 재무국의 사정은 아즉머릿스나 대개 이얇정도의 이백만원이 제이예비금에서 융금 복구비와 리재민구제비로 십일월에 지출될 모양이라하며 또 이외에 오는의회에 재해복구에 관한 추가예산으로 대개삼백만원가량이 제출될터이라는바 이 두경비를합하여도 요구의만액인 오백만원밧게 안된다 그리하야 오백만원의 반절이 복구공사의 로임으로 산포된다하여도 이것이백만에 달하는 리재민들어느 정도까지 구제하게될는지 명년 춘궁기의 그들생활문제는 매우 중대한사회 문제화하게 되엿다 하야 명년새곡식이 나올때까지 그들농민의구제에 필요한 금액은 약이십만원에 달하는터이나 이에대하야 주만대사관과 총독부의구제엣은 아즉결정은 안되엇스나 이십만원의 삼분지일인 륙칠만원정도에 불과할모양이라 한다

在滿同胞水災罹民 必要救濟費二十萬圓

二千六百戶、八千餘名

총독부 외사과에 온보고에 의하면 금년여름의 만주재주 조선동민의 수해피해상황과 이에대한 구제의 필요정도는 다음과갓다

봉천(奉天)지방 즉 심양(瀋陽) 무순(撫順) 본계호(本溪湖)료양(遼陽)철령(鐵嶺)등지의 리재민으로 구제하여야될 호수는 륙백사십구호에 삼천삼백명인데 경찰서와 민회에서 일시구제금을 모아서 구제한바 잇섯스나 준경기 삼월까지에 대인(大人)륙전 소인(小人) 삼전의 최저생활보조를 한다하여도 지금부터 삼월까지 삼만오천원이 필요하나 명년에도 새곡식이 날때까지 춘궁기를 지나 여름동안의 식량을 계산한다면 이배액에달할터이라한다 그리고 봉천 근방의 가옥류실전과 이백팔십이호에 대하야 팁시로가옥(假屋)을 설비할경비 사천오백사십원이 필요함으로봉천총령사는 이것을 주만대사관에요구하엿다

영구(營口)지방의 피해는료하(遼河)연안의대범람으로칠수경지는일천사백팔십륙정보에달하야삼백륙십삼호 일천칠백구십일명을구제하겟는바 전괴와가치계산한다면 이역시이만오천원가량은필요하다한다 또안동(安東)지방은 구시가에 삼백오십호 신시가에 이백사십호의 리재민 삼천명을 구제하여야될지경이다 이외에아즉 벽지의관계로 조사의미비한관계로 길림(吉林)간도(間島)등지의 피해정도는 아즉 알수업다 그리하야 현재에 판명된 만도 일천륙백호 약팔천명에 달

熙川价古間 十月一日부터開通

中間驛은草上、門文

만포선(滿浦線)금년도개업하는희천(熙川)에서 개고(价古)에이르는사십『키로』는오는십월십륙일영업을개시키로 예정되여잇는데그간 준비가 순조로 진행되고잇슴으로 이를단축하야 오는십월일일부터 일반운수영업을 개시하기로되엿다 동구역에 시설될정거장과 그리정은 다음과갓다

▲熙川(既設驛)
▲草上(新設驛) 一三、一粁
▲明文(同) 六、四粁
▲价古(同) 一〇、七粁

◇一금진비 오락 가락! (오늘 태평동에서)

模造送金小切手로 商銀本店서 一萬圓詐取

康津支店三千六百圓橫領犯所行?

怪! 支店엔橫領金補塡送金

전남강진(康津) 조선상업은행지점원 송규승(宋圭昇)(二七)이가 그은행금 삼천륙백오십원을 횡령해가지고 종적을 감추이래그 범인이 경성에 잠입한 형적이 잇다하여 부내각서에서는 그를 엄탐하고잇는이때 또 그은행의 모체인 부내남대문통(南大門通) 이정목 백십일번지 조선상업은행본점에서 지난십구일에 일만이란거액을 사긔지출한사실이지난이십일일오후네시경에 발견되여 경악하는한편 이사실을 드려소관본정서에 급보하엿다 즉 지난 십구일 오전십일시반경에 검은둥절모자에『노-타이』와이쌰스』를닙은 로동자 모양의삼십오륙세가량된 청년이 태연하게 그은행 위체계(爲替係) 창압헤 나타나서 전남 강진김창식(金昌植)이가 진출(振出)한 지난십오일부액면 오천원의 위체소절수 두장을 가지고 와서자긔는 김창식의 점원이라자칭하고 지불을 청구하므로 그은행에서는 이미 송금통지한엽서를 강진지점으로부터 밧고잇는터이라 아모의심을 품지안코 현금일만원을 지불햇든것이다。그후 그은행에서는 행규(行規)에의하여 강진지점으로 송금통지엽서에 의하여 이미김창식에게 현금일만원을 지불한뜻을보통우편으로 알렷든바 그지점에서는 전혀 송금통지를 발한사실이 업다는 급전을처왓스므로 비로소 이것은 금잡배에게 사긔당한것이라는 것을 깨다랏다는것이다

이사실이 탄로되괴과함께 은행에서는 이것은 번저번에 역시 강진지점에서 행금삼천륙백여원을 횡령도주한 송규승이가 경성으로 탈주잠업하기전에 미리 자긔의 련루자와 공모해가지고 송금한듯이 상은본점으로 통지서를 발송해노코 일변 송금소절수를 모조(模造)하여 그것을 자긔가 가지고 서울에 올나와 련루자를 시켜서찻도록 한것으로 보고잇다

그것을 송의범행으로보는 유일증거로는 상업은행본점에서일만원을 차저간범인이 그날그시각으로 조선은행본점(朝鮮銀行本店)에가서 현금삼천륙백오십원송금의린률하야 송규승이가 강진지점에서 횡령한금액 삼천륙백오십원을 상은목포지점에 보내여 송의횡령금을 갑게하야 강진상은지점에서는 이돈을바덧다는점에잇다

하여간 사건이 근래에 드문은행상대의 교묘한 대금사긔사건인만큼 전긔송규승은 커다란의문의 열쇠를품은채로 종적을숨기고말엇스므로 그가체포되기까지는 실로수수꺼기 그대로남어잇슬것인동시에압흐로 비상한흥미와 주목을끄을고잇다。그리고 소관본정서에서는 밤을각처에수배망을펴노코 범인체포에필사적활동중이다

소절수를 차저갈때에는 진창영(晋昌榮)의 일홈으로차저갓다고한다

行務精通者 所爲가無疑

商銀當局談

별항사실에 대하여 상업은행본점으로 좌백비서과장(佐伯秘書課長)을 차즈니비상히 긴장된태도로 다음과가티 말한다

『범인의 범행이 실로 대담무쌍하고 교묘를 극한점에서 놀라기를 말지안햇다 범인은 은행관계의 내용에 정통한자의 소위일뿐아니라 단독 행동으로는 불수업고 확실히 련루자가 잇다고 생각한다 이번범행에잇서서 제일알수업는일은 우리은행에서 일만원을 차저내가지고 그중에서 송규승이가광주지점에서 횡령한 삼천륙백여원을조선은행을 통해서 광주잇는 범인의 지인(知人)모에게 보내며 그것으로 광주지점에송이 그왕 횡령한돈을 보닛(償還)해달라고 보냇고 또광주지점에서도 그것을 바덧다는것이다 하여간 이런교묘한 은행상대의 사긔사건은 근래에 드믈일로 모도가 송을 잡기전에는 수수꺼기로 볼수박게 업다』

安東縣水源池에 土兵團百餘名이出現

【新義州】지난십구일 오후일곱시반경 안동현 수원지부근『팔푸랑 서방 약일키로의지점 중흥촌(中興村)부근에、계통이 불명한 토병단 약일백명이 모다 만주국경찰대의 정복을닙고 나타나 부세지를 습격하려는 긔세가보임으로 부근주민이 속속피난한다는 급보가 안동경찰서에 도달되엿슴으로 안동서에서는즉시 전원을 비상소집하야 시내를 엄중경계하는동시에 경관대〇〇명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야 수비대〇명과 안동현경찰대〇〇명과 련락을취하며 토병단의 소재를 수색하얏스나 토병단은 벌서 만주인 다섯명을 인질로잡아가지고 다라난뒤이엇다고 한다

【新義州】전긔소동이 닐기전 십구일오전세시경 안동현경찰서근무 경사(警士)당문경(唐文卿)(三〇)은 분흥동(分興東)압거리에서 수상한만주인 한명을 부들고 심문을하든중 돌연배후로부터 두명의괴한이 나타나 권총으로 당경사를 쏘아 명중식히고 실골돌바슨 괴한들도 빼아서가지고 비호가티 다라낫다 별항보도의 토병과 련락을 취하는 선발대가 아니엇든가 의심된다고한다

十三道溝土兵團 同胞二十餘名을拉去

【咸興】련합토병단의일당약백여명은 작이십일저녁 십사도구사방자(十四道溝四方子)에이동하여 잠재하면서 수개의소부대로는 십삼도구써자에 파견하여각촌락에서 금품다수를 강탈하는동시 인질로 이주동포등이십여명을 사로잡어갓다 팔도구부운수리(八道溝浮雲里)에 집결하고잇든 련합토병단 이백여명은 십오도구(十五道溝)벼지에 점거하고잇스는 점산호(占山好)의 일파와 이십일 오후네시경 십삼도구대북우리(十三道溝大北牛里)에이동하여 각지방과의 교통을완전히 절단한후에 이십일밤 십삼도구 서가지를 습격하려고 준비중이라는바 동일오후오시경에는 시가지와의 교통은 전연 업게되여동지일대는 완연히 전시상태를일우고 잇스며 동구경찰대는필사적 경계를하고잇다

당 십이명은 이십일아츰 아홉시경 십사도구 독동덕리(獨洞德里)에 이동하여 동지동포 가옥을 전부수색하여 생아편삼백량과 『모히』를 강탈하고 조선인 리광언(李光彦)을 사로잡어갓다는데 이와가티 토병대들의자심한 발호에 동지일대의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잇다

天氣豫報

曇驟雨

朝鮮의低氣壓은 國境中部와 西朝鮮海과 揚子江下流에잇서서 不連續線을伴하야 江原道附近에도 小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日本中部와 小笠原島及樺太方面에 擴大하야잇스나 그勢는弱하다 滿洲、朝鮮은曇天或驟雨가잇다 日本內地는 大概日氣가조코 東北地方부터 北海道에걸처 日氣가나쁘다 明日도良候는못된다

昨日最高 三十度八分 最低二十二度五分
今日正午 二十七度六分

運動競技

平壤船橋里에 公衆풀建設

經費二萬圓으로

【平壤】平壤府에서 方今一萬圓의 工費를 드려 建築中인 箕林里公設運動場內의 府營水泳場은 八月中에는 近近 竣工을보게되여 느저도 九月中旬頃에는 開場式을 擧行할터인바 平壤府에서는 또다시 市內接近地에다 水泳場을 建設해서 一般市民에게 便利를 주고저 建設地를物色中인데 그候補地로 瑞氣山後庭과 高射砲隊 門前附近의 軍用地를 交涉하얏든바 拒絶當하엿슴으로 다른곳을物色하야 오든中 船橋里方面以外에는 適當한곳이업서 드듸어 明年度 豫算으로二萬圓을 計上하야 公衆水泳場을 建設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

柔道有段者會서 會員親睦川獵會

朝鮮柔道有段者會에서는 來二十五日에 新入會員歡迎會兼會員親睦川獵會를 열터인데 會員及會員外의有志有段者의 多數參加를 希望한다는바 當日規定은 다음과갓다

▲會費=五十錢(當日持參) ▲場所=水色(午前十時正刻京城驛出發) 往復車費自擔

京日女子庭球大會 九月十五日京運서

京日主催 第十七回全朝鮮女子庭球大會를 來九月十五日(日曜日)에 京城運動場에서 開催하기로 役員會에서 決定하엿다는바 今般大會부터 開催日字가變更된것은 今秋擧行될 明治神宮競技大會에今年度부터 女子各府縣對抗庭球戰을 加入케되여 그對抗戰에 朝鮮代表를 派送케되엿슴으로 該大會가明治神宮大會豫選을 兼하야開催키로되엿다한다

朝滿陸上對抗 滿洲側選手決定

第五回 朝滿對抗陸上競技大會는 來二十五日 大連公設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朝鮮代表를 마저 對抗할滿洲側選手는 二十二日에 全部決定되엿는데 『멤버』中에는 權泰夏君이 千五百米와 五千米競走에 各各出戰케되엿다한다。

▲百米=西 張星贊 吉住猛 松田 太田 ▲二百米=西 張星贊 吉住猛 井上勳 松田 ▲四百米=西 吉住猛 井上 張星贊 山田 ▲八百米=濱田 瀨口晃 松尾 關戶 永正 ▲千五百米=權泰夏 濱田 北本 志水 濱中 ▲五千米=權泰夏 北本 志水 關戶 濱中 ▲高障碍=武內 米村 山田 金子 久恒 ▲四百米障碍=渡邊賢 吉住猛 米津 山田 中島 ▲投槍=出島 吉住猛 岡田 渡邊 ▲棒高跳=久恒 阿部密 齋西 渡邊 岡田 ▲投圓盤=伊藤 林士郞 岡田 橫山 吉住猛 ▲走幅跳=金子 張星贊 岡田 柴田 渡邊 ▲投砲丸=吉村 安部 林士郞 伊藤 齋藤 ▲走高跳=武內 橋本 岡田 長谷川 井上 ▲三段跳=金子 張 岡田 柴田 渡邊 ▲競走=西 張 吉住 松田 太田 井上 柴田

外國語에能通 目標는軍事探偵

米國女子와結婚하야所生까지

移動班에逮捕된朴璜來歷

【新義州】지난륙월하순、평북이동경찰반에 체포되여 정주경찰서(定州署)에서 취조를 밧다가 금월십칠일、평북경찰부로 넘어온국제군사탐정 박황(朴璜)(三〇)에관한사건은 사건이 중대한만큼 평북경찰부의 긴장은물론、이에따라 상상、억측의 보도도 만헛스나 본사에서탐문한박황의래력과 그동안의경과는 긔보와갓다 지금이를더상세이보도하면 박황(朴璜)(三〇)의일명이 박창선(朴昌善)인데 그출생지는황해도 곡산군화촌면광천리 일송정(黃海道谷山郡花村面廣川里一松亭)이며 현재는 만주국간도성 연길현 명월구(滿洲國間島省延吉縣明月溝)에 거주하고잇섯다 열일곱살때 그안해가 어린아들을 남기고 이세상을 떠나매 그는 극도로 세상을 비관하고 그출생지를떠나 그이듬해인 명치사십칠년 구월 조선의 이주농민으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미국하와이로건너가 그곳『이예와』라는 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얏스나 일이 뜻가지 아니하므로 경성출생의 리순긔(李順基)와가티 『쌘푸란씨스코』로 건너가 호텔뽀이가 되얏다가 그다음 광부(鑛夫)로 흘러 뽀이가 되여『로쓰안젤스』『시야틀』로 전전류랑하다가 명치사십사년 십이월『시야틀』로부터 일본을 향하야 도라왓다 횡빈(橫濱)도착후 그곳서 방랑하는중 이듬해 대정칠년 미국군함의『우라지보스독』회항을 기회로 그곳에 수부로 탄선하야 동해로 건너가 근무한일도잇고 다시『우라지보스독』으로 건너가 광업에 종사하는중 소화사년시월 그곳(露領)『다라순』이란곳에서 미국인광산가 『랍톤』의 고용녀스타ー와노(三七)란녀자와 결혼하야 작년에 장녀미아를 출생하얏다 그후 광산에도 별로자미가 업슴으로 고국으로 도라오라하든중 그곳에서 박성렬(朴聖烈)(三八)이란 사람의 권유로 모국과모국의 군사탐정의 일을 마튼후 간도로이사하야 살다가 금번오릴 조선안으로드러가라는명령을 밧고들어오는길이라한다 이와가티 박황에 관한 사건은 국제적 중대사건임으로 평북경찰부에서는 크게 긴장하야 사실상을 더욱 조사하는동시에 이사실을 군부에도 보고하야장차 엇떠한 결과를 내이게될는지 아직알수업다고하며 그가군사탐정으로 활동한 내용등에관하야는 아직 엄비에 부처잇다

江華에銀行設置

關係當局에陳情

【江華】강화산업조합을 경유하야 변산백만원과 가마니를 통하야 십만오천원 강화양조주식회사의 년십사만원 취인을하는 강화산업계에 잇서서 팔만주민의 갈망하고잇는 은행설치문제에잇서 강화번영회(江華繁榮會)에서는 진정위원삼씨를 선거하야 관계요로에 적극적 진정을하기로하야 금이십이일에 진정위원 김근호 서봉순 황우천(金根鎬 徐鳳俊 黃祐天)삼씨가 한성은행、한호은행(漢城銀行)당국과 총독부에 진정원을 파견하엿다고한다

車輦館體育會 陸上競技盛況

【車輦館】차련관체육회에서는지난 십구일 오전열한시반 본보 차련관지국후원으로 당지 공보교운동장에서 차련관시민륙상경긔대회를 개최하여 대성황리에 오후여섯시경에 정상윤(鄭相允)군의 인도로 차련관체육회만세 삼창을 부른후 무사히 폐회하엿다한다

慎東玉等求刑 自五年至三年

"朝共再建捉委"事件

조선공산당 재건촉진위원회(朝共再建促進委員會)사건의 피고신동옥(慎東玉)등 네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에관한 제일회공판은 예정과가치 이십이일 오전열시 경성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담당 대판(大阪)검사의 립회아래 개정되엇는데 사실심리에드러가 피고들은 사실을 전부 시인하엿고 립회검사로부터 다음과가치 구형을 하엿는데 언도는 이십구일로 결정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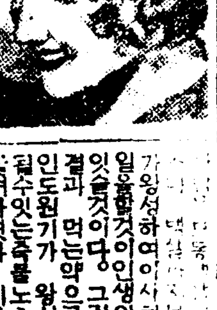
▲慎東玉 五年 ▲金義頎、金桂春 各四年 ▲李圭煥 三年

平元東部線의 新工區近近着手

철도국에서는 만포선(滿浦線)과 평원동부선(平元東部線)의 신설공사지점에 따라서 금번다시아레와가튼 두공사구를 신설하야 각각 그신설공사에 착수키로되엿는데 더욱 평원동부선 직동(直洞)공구에는 동선최대의 난공사인 토령(土嶺)터널의 공사가 포함되엿다

▲滿浦線 第二十六工區 事務所 啞毛老 區長 柳原技手 事務開始 八月二十五日
▲平元東部線 第六工區 事務所 直洞 區長 上村技手 事務開始 九月一日

보양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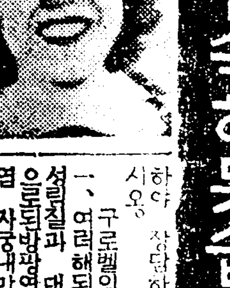
효력 최국상 최특등、동서양에 제일유명한 약의 정분만 만히 느엇답니다

사람이 제일욕이 건강하여야하고실혼일욕하는데 근래는 튼튼한 사람이적고 약한분이만어진당 신경쇠약이니 양기부족이니 원기가부족하야 마음대로일을못하게된다。이것은문명이발달됨에따라 생존경쟁이 심하여짐으로 뇌를만히쓰게되고 애를쓰고 번민이만하여지고 자연히원기가쇠약하여 신경쇠약 또 아라 양기도업고 최후에는신경쇠약 따니폐병이나 하고 오래못살고 세상을 버리게된다

가왕성하여야사회에서 일을할것이인생의향락도 잇슬것이다 그런고로다년연구한결과 먹는약으로보음보양하며로인도원기가 왕성하야청년과가티될수잇는즉불노초라할수잇는것을발견하엿다 지금보통잇는새식기약이니호르몬약이니하는것은 일시적으로생식기만흥분식혀 양기와정력만업세고그후에는심히약하여지고마는 이가이자(KAIZ)는동력인원기를왕성하게하는동시에 보양보음을하야생식기를자연히 흥분식히는 작용이잇슴으로 원기와 양기는점점왕성하여질뿐이요 쇠약하야 지지는안는다 류행병을 알엇던지과음고통하고 또선천후천적으로몸이약하야 양긔부족하고원긔업고 신경쇠약증이 잇는분은 속히가이자를 쓰시오。양기부족。음위속히되는분、불감증、쾌감업는분 신경쇠약、빈혈증

【약가】중증엔十원、경증엔五원、지방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선금은무료(약은환약이요)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효력최국상 최특등으로、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독일약(해루미도ー루) 도마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전보담만히더느엇답니다

◇남녀만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줌소태、월경고르지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야보고 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안심하고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KUROBEL)(구로벨)을 쓰시오 구로벨은틀님업는 약이다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결과 환자의안심과신용을어기우

하야 상담하오며 안심하시고쓰시오

一、구로벨의특장
一、여러해되는고질 특히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은물론、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산증)섭호선염 자궁내막염 란소염 라팔관염 뇨도협착증에효력
二、이약은 다른약과가티지리하게오래안먹고 만급성간에오래된 고질만성증이라도 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안상하는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조곰도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 업슴으로 위장이약한분이 만히먹어도트림하나안난다는말은 효험본여러분의 찬송하는것이다 그런데 이약이속한리유는 다른약을오래쓰게되여 그동안 조선이끈난한소치엿다

【약갑】완고약성에九圓、만성귀타제중에五원、대하증、냉병기타부인용에三원、급성과부인오줌소태에三원 대금인환은삼십전 (五원이나十원이나다일주일분)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요

효력 최국상 최특등、주사이상이라한다주약을더만히느엇다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선조유전또는전염으로발생하야대개다사르바루상즉륙백륙호주사맷대하여야겨우일시적으로줄너지지만완치가잘안되고여러번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매독이업서지지안함을 보드라도륙백륙호가지고는불완전한것이증명되다 그래서이불완전한점을업새기위하야주사가아니고먹는약으로일주일에효력을볼수잇는매독약푸로다ー(PUROTA)를 발명하엿다 여러가지로치료하여도 아니나어고통하는분은곳실험하여 보시요안심하시고염여마시고쓰시요。장담합니다。

◇이런분은쓰시요。◇남녀의국부가 허럿스며 가려운데 눈이히미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목이쟁기고 머리가 빠지고 여기저기종기가터지는데 또창병감창코허는데 등에신효합니다

【약가】완고용七원、중증용五원、경증용三원、지방송료선금무료대금인환이면삼십전 (약은환약이요)

만일무슨약이든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노팽에안맛거나 광고와틀니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五)제일큰서양놀집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부)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感冒解熱特効藥 實效散

定價
불느면對答 머으며낫는 感氣熱에 實效散
本舖 師岡天然堂
NO.133

萬病大王藥 神秘丹

藥價 一〇〇 一.二五〇 一.五〇〇 三.〇〇〇 三.〇〇〇 五.〇〇〇
製造本舖 大邱景春堂藥房
一手販賣 京城府義州通一ノ一 三中洋行

京城金地金銀分析所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金 銀 福 白 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38) 九〇〇番 九五〇番 二九二〇番 八八〇〇番
振替東京六八八番 電略受信(クフシイウケウト)
平壤府旭町出張所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二十二日封切五日間 封切サービス週間 階下席三十錢均一
上映順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ノーマン・マクラウド監督 グレシー・アレン ジョージ・バンズ 共演 娘結婚症
二、朝日世界ニュース(六八)
三、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鬼才、ミチエル・ライゼン監督 麗花、シルビヤ・シドニイ主演 吾が妻を見よ
人間の眞心は人種國境の垣を飛び越へる！大小なくそこに起る波瀾はいつも話題を作る、然もヒロインが米國貴族の一靑年と小麥色のインデアン娘だけに話題だけでわ濟みそうもない、此れは米國貴族社會を擽揶つたパ社の異色篇年一作主義の名花シドニイが土人の娘となつて見える可憐な姿！！
次週大公開 不朽の名作新版來る、デートリッヒ・クーパーの名コンビ 其の名も懷し名篇『モロッコ』
洋畫專門 浪花館

八月二十一日부터四日間 破格의大衆料金 階上五十錢 階下三十錢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十五分 七時十五
◇와너내쇼날特作日本版 映畫鑑賞은第一級名畵公開 언제든지 國成社에서 名星 젬스깨그니主演 스타 惱殺
◇와너내쇼날特作日本版 에한번식은봐두어야할傑作 痛快하다할가우습다할가男女 男子로나려거든이러케생겻거나 집으로래날이면이런본세로해보
◇와너내쇼날特作日本版 케이푸란시스主演 南國의戀歌 야자수그늘속남모르게피여난꼿、하도탐내는世上男兒의거르조김에、꺽길듯말듯……파란
◇J、O、太秦全發聲映畫 市川小太夫 酒井米子 主演 흐로ー맨스 池田富保監督 血戰高田馬場
次週特別大興行 秋期第一週大巨彈篇 男子의世界、불의파레ー드 第二週 집업는아이、꼿피시절 (3)殺頭王、社長영감오신 (4)相姬、(5)메리위ー도우、의때이나、(6)빗나는눈동자 線型超特急、스페인狂想曲、全孜春香傳
全部第一 映畫談話 一流 電光 發聲 國成社

단것이란 엇던것?

비위를 돕는데는 신맛이 제일이요 선지오만은 초장도 다른장만 못지 안케 맛을 내는데는 초가제일입니다. 초라는 음식맛과 관계를 가지고 잇다는것은 흔 말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곳득곳득 고히들 주의하시지안는 모양이 아닙니까 이기때문에 서울서는 초를가지고곰다한것? 그야 단것을 안넛는 음식이라면 아 어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조흔 재료, 모상관도 엇지오만은 단것을 꼭 너허 조흔 술씨로, 음식을맨들려며도 장맛이 아 되면 조흔 풍취를가려 너허야 될 조하야하고 압념어 가저야하지 안습니 니다. 그러케 하는데는 위선 단것에 대 까? 가장 되장이 음식맛과 지중한 편 한것을 자세히 알으서야 할것이라 지 겨를가지고 잇다는것이야 누구시든지 알 즘거귀 대한것을 잠간 소개하겟습니다

조에는 두가지 양조초와 조합초

돈적게들고손쉽게맨들수잇는 맛조흔 조합초 몃가지

요사이 가가에서 파는 초는대개 통에다가 초산(醋酸)을 타서 파는것인바 맨봄만 타서는 숭거우니까 그이외에 냄새를 조케하는 향료(香料)라든지 맛을돕는 조미료(調味料)라든지 여러가지를 가입합니다.

이것 저것을 석거서 조합(調合)한는 까닭에 그초에는 종류가여러가지요 또그

종류가 여러가지인까닭에 품질도서로 달읍니다. 자칫 잘못사다가는 시기만 지독하게 시지 감칠맛이 조금도 업습니다 이런 초일사록 맛을 보아가며사서야 될것이외다.

그전 집에서 맨들어먹든 초와가티 잘 상하지는 안하나아모래도 맛이야 그만할수 잇습니까? 터구나 이런초도 썩상능가는것은 상할리가

절대로 이업슨되 것이품질야 그역시 상하게 되지 안습니까?

×

집에서 맨드는초를양조초(釀造醋)라고하고조산을석거서맨든초를 조합초라고 합니다. 양조초는 비저낸 초란 의미요조합초는 여러가지를 조합해맨든초란 의미올씨다. 그러고다시

조합초 는중에서 삼등초 위생초라고 합니다. 위생초란 썩지 안해서 위생에 조타는 의미인듯하외다. 하여튼 우리조선서는그전날의 양조초나 오늘날의조합초나 그저 초대로 그냥 쓰고 한껏해야 초간장과 초고치장쯤해서 먹는만은 초에다가 다시 이것저것을 너허가지고

별의별 맛이다나게할 수가업시 안습니다 그런초가 업기때문에그런초를 무어이라고 불러야할지 이름 짓기조차 불편하나 위선 이것저것을 가미하는 만큼 가미초라고나 불러둘까합니다

×

가미초 [illegible]겟습니다. 시험삼아 [illegible] 시기 바랍니다.

누른자초 닭의알 누른자만 뽑아서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갈분 사탕 소금등을 적당하게 너코 초를 탄것

흰자초 닭의알 흰자를 뽑아서 풀어가지고 누른자초에서 한것이 갈분등을 너허서는 다시 끄려가지고 시킬것

백초 두부의 물기를 짜서 곱게갈고 흰깨를 복가서 곱게 갈아서 흰 설탕을 치고 초를 탄것

육초 얇븐 다시마를 구어서 빠지고 제로채서 소곰사탕갈분을 너코 간장을 치고 그우에 초를 탄것

(생강초) 초에다가 생강즙을 탄것

그런데 단것을 고르는데는 무엇보다도 빗이 깨끗하고 냄새가 부드러운것을표준해야 됨니다 그와 정반대일사록 품질이 낫습니다. 또초를 상하지안토록 보관하는데는 한번끄려 두거나 소곰을 조금 처두어야합니다. 그러케 안해서는 위생초이외의 모든초는 고만 얼마 안가서맛이 변해 버립니다.

굴비안주에 악박골물먹기

악박골! 장안만 약수터를해아리자면 누가 무어라고해도 악박골을 첫손까락 곱지안흘수 업슬것입니다. 그생일들을 령천이라고하엿스스니 효험이 신령스럽다해서 지엇겟지요

그러나 약수터라면 의례히 산을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가시나무 다래넝쿨속으로 드러가서 먹는것인줄로 아는데 악박골약물만은 『세멘트』로 석문(石門)을해세우고 대서특서로『악박골』이라고 새인것이 약수터로는 자못 위의가 당당한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이물은젊은부인네들이나 늙으신 할머님들이 손소 치성해가면서 퍼먹는것이아니고 젊은 남자들이 세넷식 떼를지어가지고와서 산비탈에 돗자리를 펴고안든지 고혼아씨를 다리고와서 요리집에 작정을 하고 심부럼하는 어린애들을식혀서 주전자에 물을길려다가 먹는것입니다.

그래서 물을먹다가 어지간히배가부르면 좌업는령감을비를 바수어댐니다. 그리고 또이만드면 또 물을마신니다.

사방에 흣터저잇는 요리집손님들은 굴비안주에 먹은와수에취햇는지 관간이 잘구스소리가 들흘러나옵니다.

표주박을 치고서 3

料理 선

호박선

조그만 호박은 세모로 비고큰 호박이면 네모로 비어 속을발려 버립니다. 아조 어린 호박이라면 속조차 그대로 두고반쪽에 내어도 해롭지 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정한 간격을두어 엇비스듬이 비는데 단지밋창은 부러잇도록 주의해 비지 안한다면 안됨것입니다. 또 그래가지고는 밥칫는우에 노하서 찌는데 만일 그러치안하면 채우에노코 물스솟에 그채를 너허서 쩌내더라도 관계가 업습니다. 호박선의 맛이 조하지고 낫버지는 가진통간은 오로지 그것을 쩌내는정도에 달리어잇습니다. 푹물르면 쌀른 호박에 지나지안코 넘우 생통생통하면 먹을재미가업서 꼭 그중간을 취하여야만 됩니다.

소를맨드는법

연한쇠고기를 고이다저서 양념해 복습니다. 그양념은보통의고기복금이나 다르지안습니다. 그러고는 진간장을치고 초를쳐서 국국물맨듭니다. 그국물에다가파를 쫑쫑쓸어서가는 고추까루와 한께뿌려 너흐면 아조 보기도 조코 맛도 조습니다.

엇비스듬이 비어노흔 칼자국난곳이 소를 끼울 구녁이니 부터잇는 밋창이 떨어지지안토록 주의해서 그구녁마다 소를 집어 넷는대로 차곡차곡 싸하노핫다가 맨나종 남는 국물을우로부터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호박의 길이가 너무 길면 접시에 맛도록 잘러서 너헛는데 요사이는 양접시가 잇스니까 긴그대로 양접시에 담는것도 무방 할줄 압니다 오이선이나 가지선은 아조 상당히 곱습으로 치고 호박선은 조롱식처럼 푸대접을하

는 수도 엇지안하나 그러케양접시에 담아 노코본다면 양료리 불어서 안하오리다

꽈리

아가씨들의귀염밧는 자마노가튼「꽈리」

태독·기침병에 약도된다

놀래도 업고 유 업는 시골색시네에게 꽈리를 부는것이나마 다시 업는노리요 재미올지다. 올라리미해 꽈리가 열매를 매질때부터 그열매가 커지고 그 열매가 붉거지기를 고대고대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꽈리가 익어진다니 무슨 소용이 잇사오릿가? 사정 업는 어버이랄까 돈이 귀한 농촌이랄까 그 꽈리를 따서 모아서 도회지에 내다가 팝니다. 서울의 색시네여, 아가가 저가가에 흘로 매달린 그꽈리에는 시골색시의 슬픔과 한이 숨어 잇답니다. 서울의색시네여 당신들이 부는 꽈리가 유난히 질붉어나온것도 아마 그 까닭이는지 모릅니다.

×

꽈리는 습긔를 실혀하고 간조한때를 조하합니다.

그래서 만일 습한 땅에 심으고 보면 열매뒤에 모다슬여 버리고 맙니다.

또 꽈리에는 버러지가 만히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 꽈리 이 잘 되지안는곳에 심어노흐면 성한 열매를 엇기가힘듭니다. 서울서는 뜰안에 꽈리를 심으는 사람이 죽는다고 꽈리 심으기를 엄금합니다마는 그럴리야 잇습니까? 그귀여운 꽈리에 그 흉악한 말을 부치다니 그런 미신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야 말로 지각업는 사람입니다

×

꽈리가 다익은뒤에는 붉은빗이 꽉기도하고 또 맛도 달콤쌉사름하야 흔히들 먹으나 먹어서 리롭은 점은 조금도 업습니다. 더구나 만히 먹다가는 배탈이 나기 첩경이니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쏠은 꽈리의 뿌리만은 맛이용시 [illegible] 약도 되는듯합니다 어린아기들의 태독이 심할때도 그뿌리를 다려먹이고 어른들의 기침에도 그뿌리를 다려먹는답니다. 그러나결국약으로는 두드러지고변변한 폭이 아니요 아모러도 운치잇는 로서 한목을 보는 셈입니다 중국사람 꽈리를([illegible])이라하고 다시 왕외주(王[illegible])라고 라거니 紅姑娘이라고 별명을 짓는데 그별명이야말로 그운치에 꼭맛는어 맛습니다.

×

그리고 꽈리를 그냥 따두자는 터지기 쉽고 또 쉬 짜개집니다. 소금에 잠간 저리엇다가 따는것이 조습니다.

世界文藝童話集

별의아들 ⑨

英 오스카·와일드 作　崔秉和 譯

그러니간 이상스러게도 대궐문이열니드니 그안에서 점잔은 중과 관리들이 나타나서 별의아들을 공경스럽게 마지하엿읍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들이 기다리고잇든 나라님이십니다. 왕자이십니다.』하고말하엿읍니다.

『아닙니다 나는왕자가아닙니다 가엽슨거지의 아들입니다. 이러케 더러웁고천한몸을가진사람을 아롬다웁다고하니 대체 엇더케 된 까닭입니가』하고 별의아들은 눈물흘그려케뜨고 무럿습니다. 그러니간 갑옷투구를한 병정이 압흐로나오드니

『우리나라님을 아롬답지안다고 할사람이 어듸잇겟습니까』하고 별의아들은압해방패를 밧치엿읍니다. 그방패에빗친 별의 아들의 모양은 참말 엣날과가티 빗나고아롬다운 얼골로 변해저잇섯읍니다.

『우리나라님은 그불상이 역이시는 자비스러운마음으로써 옛날의죄를 맑게씻서버리섯읍니다. 자!대궐로 드러가십시요. 두분 부모님께서 기다리신지 오래되시엿읍니다』별의아들은 대궐로 드러갓읍니다. 그리고 옛날 거지의 현상을 하고 나라난 어머니를 오랜간만에맛나뵈엇다 아버지 나라님은 처음으로 뵈옵게되엿읍니다. 나라님은 퍽 깃버하시고 그의 머리에다가 왕관(王冠)을씨어주시고 그의손에 홀(笏)을 쥐여주시엿읍니다.

이러케하야 별의아들은 이강변에 딸려잇는 나라의 임금님이되여서 꾸업는 사랑과 자비를가지고 어나라사람을 언제까지든지 행복스럽게 다스리엿읍니다. (끗)

家庭醫學

술을끈흐려면

問 금년이십오세 남자 인대 호주가로 술먹고는 실패를잘함으로 끈흐라고 수차결심하얏사오나 목적을달치못하얏습니다. 친구의말에 배암장어를너허술을만든후 이것을 마시면 그후부터는 구역이나고 술냄새만나도 구역이난다합니다 무삼이유이겟스며 몸에는 해가업겟습니까 (義州酒狂)

答 술을끈흐려면 마앙을굿게하야 먹지안키로 맹서하십시요 음주를중지하기는 다른것보다 쉬울것입니다 먹지안키로 작정하면 안먹게되오나 만일그것을위반하얏다면 당신은 다른사람보담 만이약하고 의지가 박약한관계이겟지요. 아조 끈키어려우면 주량을적게하야 자심도 차차잣차게 될예비입니다. 배장

림파선결핵

(大學病院內科 朴秉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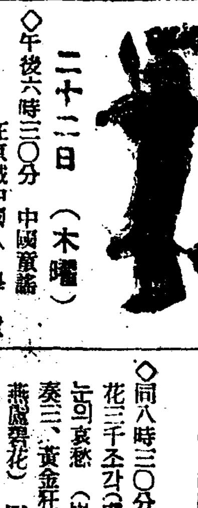
問 저는 이십칠세된 청년남자이온대 삼년전부터 목뒤호무가리에 새알만한 딴딴한 알맹이잇서 만지면 압흐지도안튼니 요사이는 만지면 대단히압흡니다 무슨병이며 엇더케하면 치료하면 조흘는지 자세히하교하여주시오 (咸興本町讀者)

答 림파선결핵(淋巴腺結核)이올시다 렌트겐치료로 업세게할수도잇스나 비용과시일이만히 드리니가 수술을하야 도려내이는것이 가장속하고 또 확실할것입니다. 오래되면 제절되러저나와서 곪음이항시나와 잘낫기어려운 결핵성루공(結核性瘻孔)이될념려가 잇사오니 되도록 속히 치료를 밧으십시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成鎭)

불임증과 월경통

問 저는금년 이십사세된녀자이온대 결혼한지 륙년이되여도 생산치못하엿습니다 월경시초부터 아래배가아푸고식욕이업어집니다. 월경은 일주일가량계속하는대다달이잇는때도잇고 한달을 걸려서잇는때도잇고 또달을 지나서잇는때도잇습니다. 무슨병입까요 (玉山 一苦悶生)

答 자궁후굴증이 잇는것가사오니 진찰을 한번 바드신후에 자궁후굴이면 수술을해서 곳치서야됩니다 그러면 월경통도 업서지고 임신도 하실수잇습니다 (大學病院產婦人科 金[illegible]煥)



二十二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中國童謠 在京城中國人 學童

◇同六時五五分 兒童特別講座 (四)理科標本採取에對하야 金秉河

◇同八時〇分 時事講話(二) 高永煥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酋擧 二、弄 三、羽樂 四、環界樂 五、編 洋琴 金相淳 金水晶 杖鼓 金一宇 大笒 金永根

◇同九時 滑稽野談 山城의奇蹟(二) 尹白南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 春香傳 柳寅成

二十三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萬物譜 柳寅成

◇同二時 主婦時間(一) 李敢求 初秋의料理 成義敬

◇同六時三〇分 童話 소주고콩밧은아이 尹喜永

◇同六時五五分 兒童特別講座 (五)果實에對한注意

◇同八時三〇分 명창心歌外 金[illegible] 一、명창心歌 二、역금수심가 三、[illegible]歌 四、[illegible]난봉가

◇同九時 [illegible] 一、[illegible] 演歌 二、[illegible] 歌中歌 中鄕紅 歌手 丁五燮

◇九時三〇分 첼로와피아노 奏鳴曲 作品六九 베-도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마·논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칸트(?) 第三樂章 아다지오·칸타빌레 第四樂章 알레그로·빠빠체 첼로 本會 伸光 피아노 海原 敏子

二十四日（土曜）

◇午後〇時五分 古談好童 白岳

◇同二時 趣味講座 秋夜와趣味의讀書 黃信德

◇同六時三〇分 하-모카獨奏 一、『數鳥』行進曲…瀨戶口藤吉作曲 二、배ㅅ사공…金坡園編曲 三、바다까의달밤…古賀政男作曲 四、봄은달개…밀스作曲 五、바르세로나…에반스作曲 六、希望의出發…江口夜詩作曲 金坡園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兒童特別講座 (六) 心身의鍛鍊과登校의準備 李俊興

◇同八時 趣味科學講話 (二) 李晶燮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落花三千조각(盧碧花) 二、쌍악눈의哀愁 (崔南鏞 盧碧花)伴奏 三、黃金狂朝鮮 (崔南鏞 姜石燕 盧碧花) 四、松花江(同) 六、南浦의진용덕(崔南鏞) 七、올니러와뎐가(同) 崔南鏞 姜石燕 盧碧花、DK管絃團

◇同九時 五條曲外 一、바떽이 二、오조 金壽男 河順男

◇同九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어느家庭風景」全一幕

配役

姜錫煥(實業家)……金海雲

尹淑利(그의妻)……沈元子

福혜이(下 男)……李流星

어 멈……………梁貴點

曆

八月廿三日 金 舊七月廿五日 辛未 土 亢 閉

▲立秋八日(舊七月初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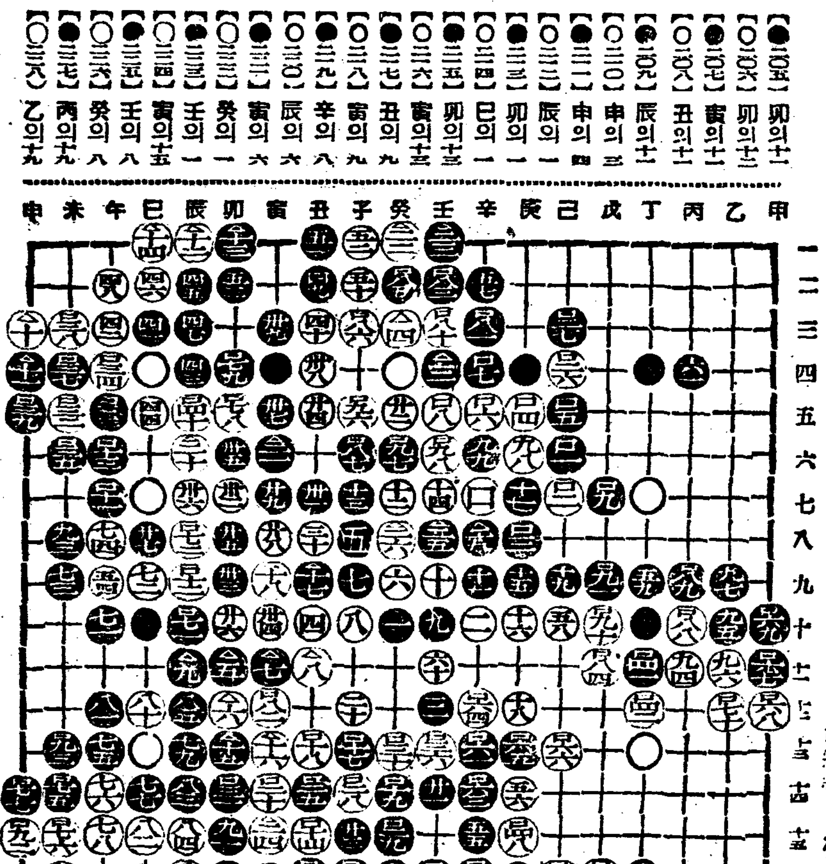
▲末伏十二日(舊七月十四日)

▲處暑(廿四日)舊七月廿六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閔仲植　黑 柳鎭河

(●二〇五) 卯의十一
(○二〇六) 卯의十二
(●二〇七) 寅의十一
(○二〇八) 丑의十一
(●二〇九) 辰의十一
(○二一〇) 申의三
(●二一一) 申의四
(○二一二) 辰의一
(●二一三) 卯의一
(○二一四) 巳의一
(●二一五) 卯의十三
(○二一六) 寅의十三
(●二一七) 丑의九
(○二一八) 寅의九
(●二一九) 辛의八
(○二二〇) 辰의六
(●二二一) 寅의六
(○二二二) 癸의一
(●二二三) 壬의一
(○二二四) 寅의十五
(●二二五) 壬의八
(○二二六) 癸의八
(●二二七) 丙의九
(○二二八) 乙의九



◇蔡極文氏評

白이 中央을 連通하야 邊角까지 指揮籠絡이 非不優良이언마는 黑의 不及欠點을 瀕究하건댄 失策이업는것은 아니다 黑의 乙丙丁耳角을 一任放過하야 不能早圖하고 午未申五六區를 盡費한 理由다 黑의 取勝料法은 出於意外이요 白의 高明手段이 終歸於敗는 恐有疏忽인가하노라

白 閔仲植　黑 柳鎭河　黑 十一目勝

豫告 當局名人 閔仲植氏 本院 丁基春氏 決勝戰

短篇小說 求婚旅行 (六)

嚴興燮 作　高一 畵

내가 그길로 집을 도라가니 마친내 안해는 밧글나가고 업고 숙희혼자만이 방에서 무엇을 부스럭대고 잇다

구두를벗고 마루에 올나스자니까 내가 종호네집에 갓다이에 온듯한 엽서한장이 엽허저잇다 나는 선듯 집기가 밧부게 그것이 종호군의 필적인데에 놀낫다

형 나는 어제 외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편지를 밧고 오늘 갑작이 시골을 가오.

자동차로 세시간가서 다시걸어서이십리나 들어가야 내외가가잇소 외할머니의편지엔 그동리에 시집갈데가 업서 묵고잇는 처녀가 한둘이안이라하오,

내가비록 못낫지만 그동리로장가들생각만잇스면 금방래일이라도 되리라하오 세상은 이러케 닥은줄몰낫소,

그러나 형, 내가 외가에가서 그동리 처녀들을 선을본다는것은 결국 내못생긴꼴을 선뵈이러가는것일게요, 하하나는 이번은 꼭 성공할작정이요 형, 나의 이번 이 눈물나는 구혼행(求婚行)을 어써케 보오? 자, 그럼 딴여온뒤로 밀으고 종호』

나는 엽서를 다보고나자 선듯 늣기여지는 한가지 의심이 떠올낫다.

혹은 숙희가 이엽서를 안해 업는새 자긔가 바더서 닑지나 안엇나? 십흔 생각이 그것이다. 내가 공연히 종호를 차저갓것갓다. 안해는 어듸로 나갓는지 안해마저 원망되엿나 혹은 안해가 바더서 내용도 닑지 안코 그대로 무심히 마루에 집어던지엇다거나 배달부가 금방 마루에다 팽개치고 갓다거나해서 미처숙희의 눈에띄이지 안엇다면……하고나는 얼는엽서를 응크려 포켓에집어너어버렷다.

나는 천연스럽게 시침을떼고 종호집대문에 박그로 장등이 채여잇더란것을 알니엿다. 이윽고 안해가 박게서 무엇을 사가지고 들어왓다.

안해도 엽서온것을 전여몰으고 잇섯다.

암만해도 숙희가 엽서를보앗만갓다

그날밤 숙희는 열두시까지나 잠을자지안코 안해와 도란도란 무슨이야기를 주고밧드니 이튼날아츰에 머리를빗고 새옷을가레입고 갑작이

「선생님 저- 오늘가겟서요!」

하고 멍그레웃으며 고리짝과 빠스켓을 꺼내놋는다

「아-니 어듸로요?」

「경상도 제고향으로요!」

「아-니 고향가시면 무어 그러케시원한것 잇서요?…」

「갑자기 어머니도 뵙고싶고또 서울잇스면 뭘하나요 일자리도 업는데……」

숙희는 대문밧을 나가더니 집군을 불너왓다

나는 암만해도 숙희가 어제 사밤 종호의 엽서때문에 섭섭일전되것가터 깨끄름하지안흘수 업섯다

「아-니 종호군이나 만나보고 떠나시더라도 떠나서야지요……」

「웬 선생님두 전 당초에 독신주의자라구 말슴 드리지안엇서요왜………」

숙희는 약간 쾌활하게 웃음을 웃섯스나 어느틈에 사-늘한 애수가 얼골전체에 떠올나왓다

숙희는 기여히 내가말니는말을 듯지안코 빠스켓을 들엇다

『만일 여긔 취직처가 생기면 내가 통지할테니 올나오시겟습니까?』

하고 숙희의표정을 삺히자

『네, 꼭 적당한곳만잇스면 알여주세요.』

하고 숙희는 방그레 웃음을 띄인다

『아-니 고향엘가면 뭘해요 글세! 그만두십시요』

나는 너무도 그의 떠남이섭섭해서 이러케 또한번 오바티이고 안해와 함끠짐을 빼으려햇으나 그는 조금도 결심을꺽기지안는다

『…안녕히 계서요…』

안전지대에 경성역가는 전차가 밀니자 숙희는 황급히 짐을들고 전차에 뛰여올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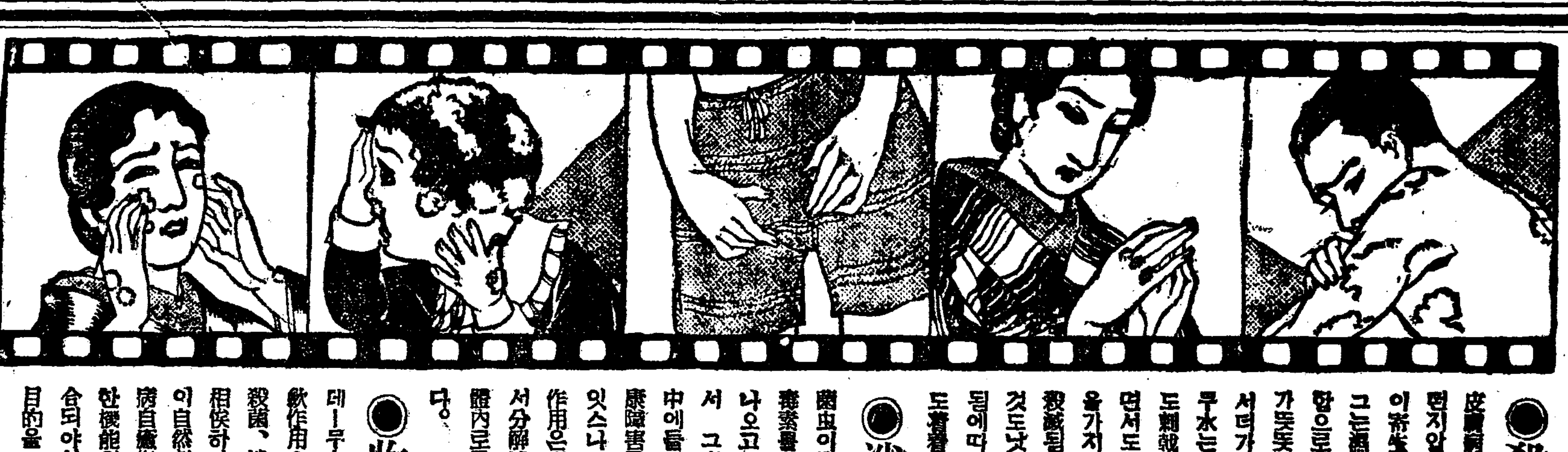
숙희가 떠난뒤이틀이지나 구혼행에서 도라온종호는 시골그의 외가人집동리어던농부의 딸과 결혼이되겟다고 명랑성을띄어다가 숙희의이야기를 듯고는 어느틈에 또다시 우울에잠기곤햇다

숙히에게선 그뒤엽서가 지난뒤에 대구엇던 개인병원에 간호부로잇게되엿다는 편지가 오더니 또다시엽서를친지 내뒤에 엇던 고무공장의 공녀(工女)가되엿다는 새소식이들여왓다.

──(끗·八月)──

皮膚病에 꼭발너야할 데-무水

皮膚病良藥데-무水가皮膚諸症에가장適當한것은임의定評이잇는바다. 때가바야으로 皮膚病의流行期이니各家庭에皮膚病良藥데-무水一瓶을常備하시라.



●殺菌作用

皮膚病으로근질근질가렵고 면지압흔것은無數한菌蟲이 寄生蕃殖하야 蠢動하고 그는濕氣와다스한것을조와함으로陰鬱한天候와人體가뜻뜻한때에는기운이나서더가려운것이다. 데-무水는人體皮膚에는조금도刺戟업고 安全無害하면서도適當한 殺菌作用을가지고、頑固한菌虫도 殺滅됨으로가렵고 압흔것도낫고、菌虫의 殺滅됨에따라 永年된皮膚病도着着完治된다.

●消毒作用

菌虫이繁殖된 患部에는 毒素를發生하야、고름이나오고、皮膚가變質되야서 그毒素가自然히血液中에들어가서 全身의健康障害를일으키는 일이잇스나 데-무水의消毒作用은毒素를 皮膚面에서分解消滅식히며 毒을體內로들어가지못하게하는것은업다.

●收斂作用

데-무水는 그特性인收斂作用으로 前述과如한 殺菌、消毒의 各作用과 相俟하야 特히人體性能이自然히가진 微妙한疾病自癒作用의 活潑敏速한機能의促進과서로 綜合되야서 皮膚病治療의 目的을 到達하게한다.

쓰리지안코、압흐지안코、보이지안코、냄새안나고、더럽지안흔外에 毒、痛痒을除去하야 빨이낫게한다.

特長

主治効能

●사면바리 ●음부습진 ●무좀 ●옴
●헌어루럭이 ●검버섯 ●濕風 ●濕疹
●부스럼 ●태독 ●腫氣 ●가려운증
●脫肛門 ●부르튼데 ●농가증 ●여드름
●족은깨 ●부은데 ●頭瘡 ●땀띠
●버묵 ●모기 ●갈떡이 ●빈대
●毒虫 ●凍傷 ●皮脂漏

데-무水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送料內地六錢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함 萬一切品時는 代金添付로發賣元에注文하시라。即時送藥함

가짜가만흐니꼭데-무水를指定하시라。

發賣元 東京芝區田村町四丁目 東京藥院本店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大阪市赤十字病院前 東京藥院支店 電話天王寺三五五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털나는후미나인

田中醫學博士創製藥으로 毛根部에殺菌、興奮、發毛誘成의作用을 適當하게하야털을나게하고、脫毛를막고、禿頭病、若年禿頭、薄毛、脫毛等아무조록털이 不足하고、보기싫은분은곳試用하시라。

五十錢、九十錢、一圓五十錢、三圓、全國各藥店에잇슴

●詳細說明書는 前記東京藥院에申込次第送呈함

白岳星譚

星山·星主·星漢王

文獻에殘存한片片星史 (5)

安在鴻

夫餘의 建國年代는 알수업스나 周秦以前부터잇섯든 의심이업다 魏志가 이를述하되『夫餘는 在長城之北하니 去玄菟千里라…方可二千里요 戶八萬이니 (其民)이土著하야 有宮室倉庫牢獄하고多山陵廣澤하야 於東夷之域에最平敞하며 土地宜五穀…』이라고하야 農業國으로서 整備된情況을 말하고『殷正月로 祭天하야 國中이大會하되 連日飮食歌舞하니 名曰迎鼓』라고하고 氷庫가잇서『夏月에用氷』하는 風俗을자못 仔細히 紹介하엿스니 그國名이『부여』로서 벌의그것과 同一한 원素이오『水旱不調하고 五穀不熟하면 輒歸咎於王하야 或言當易』이라고하엿다는 農業本位의 經濟的機構로서

人事 와天然이 緊密有機한 關聯이 잇슴을 굿게밋든 그들에게 星辰觀測과 占星術과 獲星祭星拜星의 風이만이 盛行하엿슬것이다 夫餘를 이은 高句麗에서 비로소『又祀靈星社稷』의 記錄이잇고 그 五部組織의 하나인 西部인 消奴部는『涓奴大人이 宗廟를 加하며 亦得 立宗廟하고 祀靈星社稷』이라고 한데 비추어보면 夫餘國에서는 例에依한 僧侶的인 法術師요 敎敎의 指導者가 星象도指摘하고 占星術을 방패삼아『歸咎於王』하는 發言權을

行使 하엿슬것이 의심업고 다만地方이 멀고 時代가뒤느저 漢土史家에게 미처收錄되지 못한바일것이다 同濊傳에『其俗이 重山川하며…曉候星宿하야 豫知 年歲豐凶』이라고 하엿스니 濊와夫餘는 同一系統의種族이라 더욱推測되는바이다

×

靈星은 即角宿로 二十八宿의 首位인者이라 純白色으로된 耿耿한星이 넉넉히 內眼을 놀래니『主 稼化萬物하며 布君之威信』이라고해서 星中에도 매우

尊崇 되든 바이오 希臘以來의 西歐의 天文家들은 이를 王女座의 首星으로삼어『스피-카』의名稱을 부친者라 두려운『처리옹』가쓰에차허잇는 一等星으로서 그 進化의 程度는 여간젊지 안흔터인데 地球부터의 距離는 시방의 機械力으로는 測定할수도 업는 無限大로서 이러한 할말이 업다고한다 어쨋했든 그 存在가 西洋에서도 만흔 傳說이 일어낫고 東洋 에서는 靈星으로 崇仰하게 되엇이다 金富軾의 三國史는 祭祀志에서

新羅 가 立秋後 辰日로써 本彼遊村에서 靈星과 三山五岳等을 祭함을 섯고 따로히 日月祭와 五星祭를 行함을 述하엿스니 新羅時에도 靈星 占星 祭星 拜星의 風은 일찍부터잇든 民俗일것이다 文武王時에 [illegible] 于의 일홈잇되『靈星』[illegible] 天皇氏(比較研究)인 [illegible] 傳說이 잇섯슴이 [illegible] 世에 [illegible] 面靈漢王되심수 잇든바이다

×

古代 星州는 星山伽倻로서 大伽倻의하나이라 部이니 本彼도『벌』의 新羅에서는 本彼 비이오 後部에도 [illegible] 『배어스재』로 星山의 者이다 星州의따가 京山府로 얻은 고장으로 [illegible] 一部이니 古代의『夫餘一族』이엿고 一小本彼이오 白岳(星山)은 고잇든 別天地로 되엇이라 이미별의 名稱을 띄엿스니 그도한 靈星을 祭하든民俗을 가젓는가? 星州는 오랫때에서 만흔民俗土風을 지이고잇는터이라

高夫 良三氏의 先祖出生神話가 자못明白하지마는 高氏의 十五代孫高厚의 兄弟가 新羅에 朝服하야 星主의 稱號를 띄어온것이 文獻이 正確한데 그稱號는『客星見南方』하는 星象이 [illegible] 에 依함이라고 하나 이는『耽羅志』[illegible] 의 그것처럼 後世史家의 傳會일 것이오 實은 州의土俗이 뒤넷도록 별과人生과의 神秘的交涉을 마치日子 天子의 思想에서처럼 星王星子의 原始的信仰을 가진것에 因한것이다『비바르』과『허부리』의 文化系가

波斯 따위西域諸國을지나 西來한 우리 先民에게 原始的 交涉이 잇섯든가? 日月을 崇敬하고 星辰을 崇仰하는것은 古社會에 共通한 事이나 天體의 崇敬이라 위낙 新奇로움을 바이나니 太古以來 朝鮮先民의 風俗이 별과의因緣 깁흔것은 西域의그것과 아울러 興味만흔바이다

學藝

우리의現實과哲學

…歷史的인이때의限界狀況…

(七) 朴鍾鴻

이와가리하야 이때의이社會的危機를엇더케克服할것인가를 切迫한問題로가지고잇는우리가 그의本質上 또한必然的으로 社會的인存在인以上 우리는克服이라는實踐을爲하야 이歷史的인社會의法則을 把握하는것이 焦眉의緊急한 일이되는것이올시다。於是乎 우리는『베-콘』의『自然이라는말대신으로 社會라는말을밧고아니볼수가잇슬것이올시다。우리의

學問 은 우리의現實的危機를 實踐的으로克服할方法과手段과를 獲得하기爲하야 먼저 우리社會의 客觀的인條件과아울러 法則을自然科學과가티 忠實하게實證的으로 硏究함에잇다고할수잇습니다

우리는 危機、危機하며 空然히 소리를 놉혀 危機만을 絶叫할것이 아니오 또 그러라고 이 危機압헤서 焦燥한 不安만을 늣기며 허둥지둥 요새 흔히 보는바『인테리』들의 個人的인 內面的 不安을 그대로 흉내낼것도 아니올시다。하여야될 일이 이미 決定되엿스매 우리의게는 헛된不安、헛된落望이 잇슬수 업고 危機며 危機일사록 그 歷史的인 社會의客觀的 法則에 依持하야 그를克服할 實踐的 情熱만 더욱 놉하질것이올시다。더욱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頹廢的 享樂속에 一時的 現實逃避나마 꾀하야 自己欺瞞으로써 無爲渡日할때가 못되고

健實 한奮闘로써 이 危機克服의 前途를 꾸준하게 開拓하여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리고 우리 哲學의 重要한 課題도 악가 말한바와가리 우리의 現實的 危機속에서 必然的으로 생겨나는것이以上 이러한 歷史的 社會的 問題의 徹底한 追窮과 徹底한 解決을 企圖하려는것밧게 別다른것이 업슴니다。따라서 우리는『쏘크라테스』의 模樣으로 思辨的 自然哲學의 基礎確立을 우리 哲學의 中心課題가 近代의 哲學的 方面과도 未嘗不 다르지안흘것이라는 所以를 明白히 發見하게되는것이올시다

우리들은 오늘날에잇서서도哲學이라면 가장抽象的이며 가장非現實的인 學問인것과가리 잘못생각하는수가 업지안으니 그러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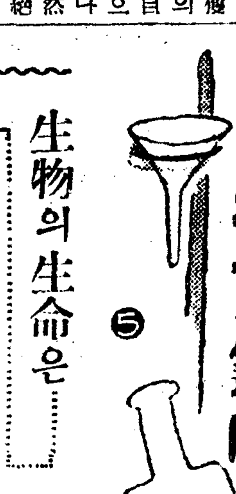
哲學 은 도리혀 가장 具體的이며 가장現實的인 學問이어야 할것이올시다。現實을떠나 오직觀念的抽象만을 일삼는哲學이잇다면 그는 學校敎壇에서나 볼수잇는 俗所謂講壇哲學으로될수잇슬지언정 이때에우리가 要求하야 마지아니하는바 우리의 哲學은 아닌것이올시다 綠野에서 시들러말라버린 人生의 灰色빗을닐만 따먹는것이 哲學이라든時代는 이미자최를감추지 오래되엿습니다 只今은 哲學이이러한우리들의 現實과 緊密한關係를 다시차저야 할때가되엿습니다。

實로 우리의哲學은 이때의우리들의 歷史的이며 社會的인이 現實속에 뿌리박고잇는것이며 이現實에 對하야할줄들은 愛着과 苦悶으로부터 용소슴처나오는問題를 徹底的으로

追究 하며 解決하려는것이 또한꼿 우리의哲學인것이올시다 果然우리의 現實이 우리의 哲學을나치못하는동안 우리의 危機는徹底的으로 克服될수업는것이오우리의哲學이우리의現實을이저버리는瞬間 그本來의 意味에잇서서 참된 우리의哲學이 될수업습니다。(一九三五、八、七)

▲訂正 本文第一回第二段 第十五行『물니치고』下에『올흔것을擇하여야할그批判은』이 漏落되엿고 第四回 第二段 第九行今에『即다시말하자면 現實을버린哲學이라는것』이 漏落되엿기에玆에 訂正하나이다

實驗室餘聞 ⑤



生物의生命은 永生할수잇슬까 (上)

徽文敎諭 李軒求

우리가『아메바』나 細菌과갓흔 微生物을 探集하야顯微鏡으로 보면 보고잇는동안에도 分裂을 始作하야 하나가 둘이되고 둘이 셋이되고 여덜이되야 그數가

大端 히 늘러 가지만은 도모지 죽어업서지는것은 볼수업다 또 더러운 물속에 普通잇는 纖毛蟲의 一種의 집신짝과갓치 생긴 小動物을보면 以上의『아메바』나細菌과갓치 分裂을 繼續하다가 約三百回假量 分裂하고 나서는 다른놈과 서로 接合을하고 또다시 分裂을 繼續함이요 自然히 죽어버리는것은 發見할수가업다 또 시내물이나 깨끗한 우물에서 만히 볼수잇는『물의기』도 生殖時期가 되면 나려잇는 무늬이 서로 交하고 갓혼것이 생기여 그것이 서로接合하면 高等動物의 受精하는것과 비슷한 作用을하야 繁殖하나 亦是 그生物의全體가 死滅하여버리지는 아니한다、이러한 生物들은 다른 外來와 特殊한 障碍가업는以上 죽엄을 모르고지내는 生物이라아니할수 업다。그러나 우리人類는 이러한 微生物들과 갓지는 아니하다 아모리

世界 를征服한 蓋世의英雄이라도 一定한 年齡이되면 漸次로 老衰하야저서 집팡이를집고도 제몸하나를 겨누지못하는 時期가 오고야말며 絶世의佳人이라도 北邙山의一片土로 變하게되는날이 畢竟은 오고야마는고로 이世上 모든사람들의 最大慾望은 不老와 不死일것이다 입으로는 아모리 死는永世의始初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하는 그사람도 萬一 이世上에 不死藥이 잇다고하면 남보다 먼저 가서 집어먹을것이니 秦始皇이 不死藥을 求하기爲하야 莫大한 犧牲을 하게되엿것도 그것을 確信하고잇는 그로서는 도리혀同情할 餘地가 잇는것이다

그러면 死라는 무엇이가 自然死도잇고 不自然死도 잇스나 電車에 치여죽어다든지 戰爭에 나가서 銃에마저 죽엇다든지하는 不自然死는 그만두고 自然死로만 보드라도 時間 上으로 보아

假死 와眞死가잇스니呼吸은 停止되얏다 하드라도 心臟의機能이 아즉 完全히 停止되지아니한境遇에는 이것을 假死라고 하지만은 呼吸이 停止되고 心臟의 機能까지 一時停止되얏다 하드라도 身體各細胞의 機能이 完全히停止되기 까지는 嚴正한意味로 보아서 眞死는 아니다 近來 醫學의進步로 因하야 心臟의機能이 停止된後 一時間以上經過한 患者의게 適宜의手當을 加하야 暫時蘇生케한 例가 얼마든지잇다 그런고로 完全한 死는 高等動物과갓치 幾百億의 細胞로된 生物은 그모든細胞의 機能이 完全히 永久히 停止된것을 말하는것일것이다 이와갓흔 自然死는 老衰의結果인고로

老衰 가 업는限에는 自然死도업슬것인고로 우리가 長生不死를 願할진대 먼저老衰를 防止하는方法을 硏究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老衰치아니하는 方法은 일즉이 硏究할것도업시 先天的으로 우리生物의 身體의 一部에 賦與되여잇다는것을 알어야한다 우리의 身體를 構成한 細胞는 幾百億個가 잇지마는 이것을 大別할수잇는데 그中 生殖細胞야말로 永久히 老衰가 오지아니하는 長生不死의 機能을 가지고잇는것이다 男子에잇서서는 이것을 精子細胞 女子에잇서서는 卵細胞라고 해서 그長이 〇、二五mm밧게 아니되야 顯微鏡으로 겨우 볼수잇는 大端 微小한 部分이지마는 子孫의 神秘한 機能을 가지고잇는 同時에 代代孫孫에 傳하야 斷絶치 안는다면 與天地無窮으로 生命을 繼續할수 잇는것이니

子孫 이 잇는限 누가 그 사람이 永久히 죽엇다고 말할수잇스리오 그런고로 靈魂不死라고 하는것은 生殖細胞의 不死를 말하는것이요 身體細胞의 死를 意味한것이 아닌것을 說明할 必要가 잇다

詩

彩石江가는길

辛夕汀

一、沙場에자리잡고

푸른별 드믄드믄 빗나는 한울아래
沙場에 자리잡고 술병을 노앗것다。
발아래 물소리는 노퍼다 나저가고
오가는 잔우에는 달빗만 가득하이。
櫓젓는 물소리는 들리지도 안치만
백전에 그림자만 꿈가티 아득하고、
한잔한잔 다시한잔 흥겨워 醉지옴에
北斗星은 기울고 텀도 山을 넘드고。

二、彩石江

山을 휘휘도라 푸른들 여페끼고
언덕을 넘어스니 彩石江 예로고나。
江물은 千古에 무슨恨을 싸혀기로
江邊에 하소하듯 저다지 부드치는고。
彩石江 맑은물이 흐름 예와 다르리만
白沙場에 남긴 발자욱 누구누구이런공
彩石은 해마다 줄어드는 이 江邊에
冊인듯 싸하올린 바위도 말이업네。

伯林은老人都市 大戰의餘殃

【伯林聯合郵信】 最近의 調査에依하면 獨逸의首都伯林의人口四百二十四萬二千五百人의 四分之一은 五十歲以上의 老人이라는것이 判明되엿다。이原因은世界大戰當時壯年者의 大多數가 戰死한것과 出生率이매우 적어진 때문이라는것을『나치스』當局의 報告書는 說明하엿다。

『프로렌스』에서 『앙콜』禁止

【프로렌스十五日聯合郵信】 藝術의 都城 伊太利의『프로렌스』當局은 아모리『앙콜』이나 拍手가 끈치지안드래도『오페라』俳優가『스테-지』에두번나가서 노래부르는것을 禁止하엿다。『앙콜』에應한다는것은『오페라』의 藝術的統一性을 害한다는것이 그理由다。

『바하』祭에 音樂郵票

【伯林聯合郵信】 近者에『라입치히』에서 行한 樂聖바하祭에際해서 三種의 記念郵票가 發賣되엿는데 거기에는 各各獨逸音樂史를 裝飾한『하인릿치·슈쓰』『요한·바하』『프리드릿히·헨들』等의 肖像이들 엇다고 한다。

新刊紹介

▲新朝鮮 八月號 京城黃金町二丁目二二 新朝鮮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四九番 定價二十錢

▲朝鮮鐵道協會會誌 八月號 京城古市町十四의十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和文)

▲普通學校全科新參考書 後期用 京城府寬勳洞一三〇 以文堂發行 振替京城一〇二七五番 定價二年用二十五錢 送料四錢 三年用三十錢 送料四錢 四年用三十錢 送料六錢 五、六年用各四十錢 送料八錢 四年制用 三年用三十錢 送料六錢 四年用三十五錢 送料八錢

▲高麗時報 第二六號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發行 定價五錢

▲東京朝鮮民報 第十六號 東京市芝區濱松町四의二 東京朝鮮民報社發行 振替東京四六二二〇番 定價五錢

黑風 【109】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탐정(探偵) 19

「지독한 가진이다 본래부터언제든지 이러한때가 잇슬것을 각오하고 자살할 약을 지니고 다녓구나」

하는 왕한은 밤쪽 숨이 끈어지라는 순옥의 얼굴을 드려다보면서 말을 계속한다

「순옥아 나는 자살하는 너에게 동정한다 너의 주인에게 충성된 너의 죽엄에 동정한다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너의 책임을 다 하라는 너의 죽엄에 동정한다 우리들은 너의자살에서 교훈을듯고 잇다죽엄을 가벼웁게 여기고책임을 무거웁게 여기는 너에게 키쓰하야 준다」

하고 왕한은 다 식어가는순옥의 이마에 고요히 키쓰를하얏다

순옥은 눈섭을 찡그리고 손을 드려서 왕한의 키쓰를 막으라 하얏스나 힘이업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눈물을 감엇다

성원은 순장으로 되야서 펄처잇는 순옥을 보고서 눈물을 흘녓다

성원은 왕한에게서 소옥에게 보내는 순옥의 편지를 보고가슴이 터질만치 분이북바처서한주먹으로 순옥이를 죽이라고쪼처갓든것이다 그러나 순옥이를 자기의 처소까지 다리고 온것은 폭력으로 고문(拷問)이라도 하야서 정탐한 비밀을 안뒤에 죽이라고 한것인즉 순옥의 자살에 대하야 놀나기는 활지언정 조금도 슬퍼할것은 업는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리지(理智)만 잇는것이 아니라 감정(感情)이 잇고 대개는 감정이 리지를 이기는것이다

순옥은 삼번 이라는 긴세월을 두고 성원의 품에서 따뜻한 꿈의 보금자리를 지어준것은 사실이엇다 그리하야 성원에게는 따뜻하고 보드라운것만을 아바지하든 순옥의 몸이하로아침에 죽어 너머저서 차디찬 대리석(大理石)의 人形을 면이라고 하니보다 [illegible]

왕한에게 대한 성원의 말은 간단하나 뜻은 다하지 못하얏다

성원은 부하의 청변 두사람을 순옥의 집에 보내어서 가택수색을 하야 서류를 잇는대로 가저왓는대 그중의 필요한것은 소옥에게서 온 편지들과 순옥의 일기(日記)엇다

순옥의 일기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씨어잇섯다

『혁명당의 사정을 정탐하라면 혁명당에 드러가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그러나 혁명당은입당(入黨)하는 규률이 엄격하니만치 용이하게 드러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고육책(苦肉策)을 써서라도 성의를 뵈어서 혁명당에 드러가기로 결심하고 우선 혁명당의 여러사람을 교제하기로 하다』

『내가 손가락 하나를 끈어서 성의를 뵈인것으로 혁명당에 드러가게 된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혁명당의 최고비밀(最高秘密)을 아려내라면 수령급의 인물을 사괴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가장 적당한 인물로는 송성원이가 될것이다 송성원은 철저한 사람이라 좀처럼 공락하기가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재색(財色)을 조아하지 안는 사내는업슬것이다 나는 돈과 색으로 성원을 사로잡겟다』

체가 되며이른러서는 아모리 파괴(破壞)와 살육(殺戮)을 일삼는 청방청장이라 할지라도 한줄기의 눈물을 아니 뿌릴수가 업는 것이 엇다 순옥에게 일만번 죽여도 남을 죄악이 잇더라도 그것은 순옥의 마지막 숨절과 가리 사라저 바리고 남어지의 책임문제가 잇다면 그것은 정탐인 순옥이를 밋고 사랑하야서 모든 일을 그릇치게 한 성원이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할수가 업는 것이엇다 그러면 성원이가 흘닌 눈물은 순옥에게만 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괴로운 창자에도 뿌려준것이지 알수업는 것이다

「용서하게 나의 눈물을 용서하게……」

第一回 全朝鮮男女音樂懸賞競演大會

開催時日 九月十九日(初選) 同二十日(公開豫選) 同廿一日(公開決選)

『場所』……本社大講堂

『申請期限』 八月末日까지(本社學藝部로)

『曲目』

聲樂 들어라 종달새 오-내사랑 꿈을딸하서

피아노 베에산 뽀트쏭 소나타七二 마즈르카

바이올린 레겐에中一節 안달류샤中一節 콜니드라이中一節

콩쿨樂譜集定價五十錢(送料六錢) 本社庶務部에서頒布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審査員 『聲樂部』玄濟明、金文輔、…『피아노部』金永煥、朴慶浩、『바이올린部』洪蘭波、桂貞植、蔡東鮮、…『詳細事項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弱한兒童을 튼튼케하는 헤-펙·엔치-ㅁ

子女는 家庭의 빗이오、歡喜의 꼿이올시다、그 子女가 病弱으로年中病에 呻吟하게되면、家庭은暗黑하게될것입니다。

子女가 弱하다고하는것은、大人과 달러서、全身的의 機能發育不全 또는 障碍가될으로써、어떤局部의 治療로써、튼튼하게 되는일은 그리케 드문일이올니다。

그러므로서 弱한것은天賦의運命으로、할수업는것이라고 自認코、오직되는대로 貴重케만 역이고感氣에도 절이지안토록 養育할 方法을쓰는 家庭이 만치만、그것은 크게 틀이는것이여서 勿論天賦的弱體兒도잇겟지만、그것도 母體의 胎內에 이슬時에、必要한 營養이 不足되기때문에、機能이 充分히 發育되지못하고 出生케되는때가 만흐며、第一노 弱한 子女의太半은、半部가 乳兒時는 胎兒時代의 榮養不足으로부터、抵抗力이薄弱하게되는것입니다。

最近 歐米의有名한大學、小兒科의 病院等에서도、動物實驗한結果에依하면、發育不良은 腺病質、即世上에서 虛弱小兒라고불리는것은、거이 例外업시、헤-펙菌劑를 食餌中에 補給함에 依하야、發育不良이되고、對照例에比하야 體重、身長을 增加식히는現象을認定되고잇슴니다。

이에對하야學者는、이것은헤-펙菌中의빠라민B의作用이라고하며 又는其他의學者는、빠라민B以外에엇더한

未知 의成分이이서서、그것이 虛弱小兒에 對하야有効하게作用한다고하는等으로說明하고잇습니다。

事實純良한 헤-펙菌劑를 分析하야보면、重要한 빠라민B를 包含하고 잇는것이알게되는바、그런데 그外에도 諸種의 活性酵素、아미노酸、구리고겡、無機鹽類、植物 호루몬等의 方效成分을 包含하야잇는것을 알게되며、빠라민B도 決코 이러한成分을 떠나서 單獨으로 活動하는것이안이라、모다 關連된여綜合的으로活動함으로써、이것을一括하야、헤-펙、엔치-ㅁ作用이라고하는것입니다。

이헤-펙、엔치-ㅁ作用은、人體외모-든機能을活動케하는根本力인 細胞엔치-ㅁ作用을튼튼하게하는 것이어서、細胞엔치-ㅁ作用의强弱이 全身의機能의强弱으로되고 따라健康과病弱과를分離하는것입니다。

即헤-펙菌劑가、弱한兒童들을 튼튼케하는것은、이헤-펙、엔치-ㅁ作用에依한는것이라고보지만은 여기에依하야 虛弱小兒 그體質을 强壯케하며、發育進식힐수잇는것은、가장깃거이옵니다

國民의健康을脅迫하는 白米毒의正體는무엇

全國民에 가장만히 그生命을 앗는 原因이되는病은 消化不良 泄瀉、便秘等을 主徵으로하는胃腸病이며、다음에는肺結核、肋膜炎、肺炎가다른、가리에스、腹膜核等의 結核病이옵니다、直接生命을 빼앗는程度가 안일는지도 國民의 健康을威脅하며 能率을 低下식히는病에 脚氣가잇고 早老現象이잇슴니다。脚氣가白米를 常食하는民族에 만흔것은 白米中에 毒素가잇서서 그中毒으로부터 脚氣가일어나는것이 안일가하는硏究는

훨신以前부터 實行하고잇지만、其後빠라민이發見됨에 따라、脚氣의原因을、빠라민B의缺乏이라고하는說이有力하게되고、白米中毒說은이천廢시치되엿다。

그러지만最近에 理硏의岩田博士等에依하야、白米中에는、리조레시칭이라고稱하는、血液을破壞하는猛毒이잇단것이確認되여、白米中毒說은、絢同는有力하게되여왓습니다。

그에依하면、리조레시칭은、金魚를水中에 一萬分의一의이毒素가잇기만하야도죽(死)는다고한다、鳥類에白米를모이주며綠黴이되는것을보면、血液의色素가이에依하야 破壞分解되며、綠色에還元되기때문이라고합니다。

其他여러가지의硏究를綜合하면 白米中毒은、單脚氣의原因이될뿐만이라。

早老와慢性腸病 結核等을誘起하는原因도되고、全國民의生命을威脅하며、健康을빼앗는大敵이라는것이밝게되엿습니다。

그런데 人體中에는、그러케까지 猛毒에 對해서도、中和와分解作用에 依하야、그것을 防止하는 物質이잇서서、그것을 레시라-제B라고 稱하는바、그成分은 가장 적은것이어서、一方에잇서서 玄米食과 胚芽米食에 依하야 毒素의害를 防止하이 必要한바 他方레시라-제B의 補給方法으로서 純正헤-펙『錠劑와가모도』을常用하면 白米毒으로부터이러나는、慢性胃腸病 病 脚氣、虛弱體質等의害를 [illegible]

即『錠劑와가모도』에는 레시라-제B를 多量으로 含有 同時에 빠라민B와消化不良 腸病等 에效가잇는諸種의 酵素호루몬等의 貴重한 成分을 豊富히 包含하야잇슴으로서 弱한榮養 循環 消化等의 機能을旺盛케하며 따라서 結核에 對하야

抵抗力을强大케 하며 早老를 防止할수엇기때문입니다 이『錠劑와가모도』는 全國民의 健康增進과 幼兒死亡率의 減少의目的으로써 設立된 榮養と育兒の會의製造發賣에依한 一定日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 이라고하는 一日數錢에不過한 奉仕的廉價로서 提供하여드리는데 近來에 그廉價를 利用하여 效果에 疑點잇는 類似品이 橫行하야、利益만 追及하는 業者에는、이것도『錠劑와가모도』와 同樣의 効果가잇는것이라고 宣傳하는 傾向이 만습니다。至極한 微生物活性劑로서、工作에依한『錠劑와가모도』는、絶對로他品이 模倣할수업는것이옵니다、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二七〇〇番) 所在는 東京芝公園大門內榮養の會

神經衰弱과 白米毒

執務中에疲勞가생기며 손에 [illegible] 氣分이焦焦하며 조 [illegible] 疲勞키쉬고、根氣가업게 되는 現象은、요즘에 執務家들이 經衰하는것입니다。

이런날이 健康되면『神經안까닭기』라고 指摘하는 만흔모양이나、이것은 實은 白米中毒으로부터오는 一種의 神經衰弱으로서、그抗毒의 레시라-제B와、빠라민B 其他의 新陳代謝促進機能素 成分을 含有한錠劑와가모도를使用하야、毒素를中和分解하며、衰弱된機能을 改造식히는 것이 急務입니다。

療病話

五年間의脚氣와 慢性胃腸病이輕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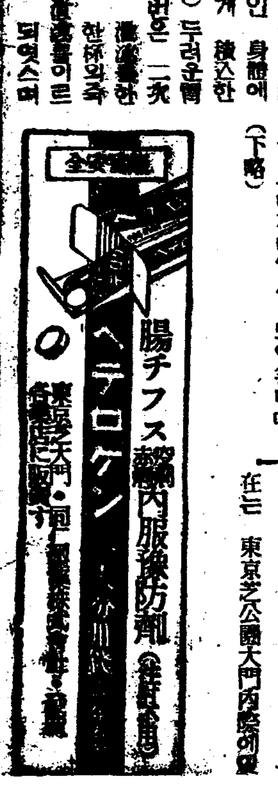
長野 山田요시코

約五年間 腸病으로서 痿弱하게 되엿든바 昨年十二月에 醫師의 診察로서 養生法 [illegible] (中略) 食事後곳 [illegible]

야겨우治癒한바 本來 痢病質인나는(中略)혹착여위여젓습니다。하로라도 速히 病後의 衰弱을恢復식혀、以前體質대로回復식히려고、초조하엿든바、鷄卵、牛乳等 모든것을 運動不足인 身體에 不理하게 詰込한 結果(中略)두려운胃腸病에 再發하야 이번은 二死의 [illegible]

一日二回의 葡萄糖注射와、그高價한 〇〇〇에 겨우 조고만한 生命을 持續케 되엿든바엇던날 三個月이나 同病에서 苦悶밧든、親한言근 老婆가 갓다주는것은『錠劑와가모도』어섯슴니다(中略)

곳 服用하여보앗드니、數日後에는 말근죽을 먹게되엿슴니다 注意하면서 服用하는中에 무엇보다도 깁뿐일은、(中略) 一回에五勺의말근粥과 국을 먹게되엿슴니다。그것뿐인가、五年來의 慢性脚氣도 (中略) 무거운 步行이 困難한 痲痺와、때로몸을 安靜식힐수 업는 心臟의 動悸도、온데간데업시 되엿슴니다。(下略)



三務校學生들의 流血亂鬪大活劇

十餘名의重輕傷者를내여 原因은盟休者의反動

【新義州】신의주 삼무학교(三務學校)의 생도들이 교장을 배척하고 일제 동맹휴학을 단행하얏다가 중재자들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당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조건하에 다시 등교를 하기시작한은 지난 륙월달의 일인데 그동안 학긔시험을 지나고 녀름방학도 거의끗이나 귀향하얏든 학생들도 신의주로 도라오게되얏스나 학생들사이에는 전번 동맹휴학의 취지를 아직도 닛지안코 그전맘을 감시하는등 동교에대한 암운이 아직도 학생들사이에 사라지지안헛다 그런데 학생들중에 주모자라할만하든 학생 김대순(金大順) 박인백(朴仁伯)등 칠팔인은 태도가 매우 연화하여 학교당국자의 환심을 사려 함만인이라 그중세명은 현재 전교장(上田校長)의 아들의 주선으로 명치대학중학부로 전학을하게되는등 태도가 심히 모호하다하야 지난십구일오후 한시경 이를분개한 지명선(池明善)등 십여명은 신의주미륵동(彌勒洞) 도수장압헤서 전긔김대순등 십여명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자 이편에서도 대항을하야 결국 큰편싸홈이 이러낫는데 몰고차고 내종에는 단도까지 휘둘러 십여명의 중경상자를 내엿다 결국 경찰의 출동으로 싸홈은 진정되고 피투성이가된부상자들은 덕산의원(德山醫院)과 명산의원(明山醫院)으로다려다가 치료를 밧게하고 금번폭행의주모자라할만한 지명선(池明善)외 동년수명은 경찰서로 잡아갓다한다

練光亭과同時 大同門도修築

【平壤】 문허저가는 평양의고건축물은 얼마전 총독부학무국사회과 고적계에서 조사한후 련광정(練光亭)만은 즉시착공키로 되여 도학무과에서는 즉시설계서와 수축비를 제출 키로되엿다 그런데 련광정과 가튼운명에 잇는 대동문(大同門)도 석파(石破)에 이끼가 생기여 위긔에 빠저잇는것을 대동문파출소원이 발견하고 경고하여왓스므로 련광정의 수축과함께 석파의 수리를하고저 총독부에 신청케되엿다한다

鐵橋의中央에누어 列車〃스텁〃시킨女子 알고보니그는狂人!

【元山】 지난이십일 오전다섯시경에 원산역발 부령행렬차가 원산철도곽사부근에 잇는 철교에 다다르랴할지음에 동철교중앙에 상반신을 라체로한 녀자가 누어잇슴을 동긔관수가 발견하고 곳 긔차를 정거하엿스나 동녀자는 용이히 일어나서 가려하지아니하므로 할수업시 승무원이 겨우 끄내엿다는바 그는 정신병자로 그날 철교에 들어가서 누엇다가 다행히 긔관수의 눈에 띄워 무사히 몸을 구하게된것이라고한다 이러케 광인의 스텁신호에 긔차만 이삼분늣게되엿다고한다

求、瑜兩面堤防 復舊工事促進 代表選擧、當局에陳情

【大邱】 경상북도경계인 달성군 구지면(求智面) 유가면(瑜加面)양면이장년 수해로인하야 제방(堤防)일원오백간이나 류실되엿는바 경북도당국은 일년이되도록 한등대책이업고파괴된그대로방임하고잇슴으로부근주민사백여호와 토지오백여정보의 소유자는 놀랜간장이되며 천긔만호리여도 틈만에싸이여잇든중 지난십구일 주민대표 진희태(秦喜泰)윤선균(尹善均)외팔명이 도당국에 금년내로 국고보조로써복구하도록 진정한바 잇섯는데공사비오만원중 지방부담금 이할을 절대로 책임부담하야 승인한다고 도당국은 강경한 태도라하며 지방민은 이할중에일할만부여내겟다고 애원한바 잇섯다고한다

醴泉全郡에서는 各面마다祈雨祭 市場移轉의大騷動

【醴泉】 례천군일대에는 오래동안계속되는 가믈로 인하야 처처에서 물싸홈을 이르켜 가진희비활극을 연출하는터로 천봉답과 전작은 고사(枯死)하야 수리가 가위전멸상태에이르럿고 수리가 조타는논도 귀렬이 남지경으로 인심은 극도로 흉흉한 모양인데 례천군 각면에서는 행여나 얻을가 하고 지난 이십일에긔우제(祈雨祭)를 일제히 지내는중에도 더욱이 례천면에는 흑응산장군대(黑鷹山將軍臺) 미테서 잘실이 긔우제를 지내고동시에그날부터 구관습에의하야 한천백사장(漢川白沙場)에다 장을옴겨보이며 이에시민들은 집집마다 검구를지고 향로를깔고 잇다고한다

雇用사리를悲觀 壯年男子自殺

【保寧】 본적을 충남보령군대천면(保寧郡大川面)에 두고 동군주산면창암리(珠山面倉岩里)리방주(李邦周)(假名)집에서 고용사리하든 류공선(柳公善)은지난십구일 오전네시경에 뒷동산에서 수건으로목을매여죽이엿다는 대조사한바에의하면전긔류공선은 지난십칠일밤부터이일까지 곽난(霍亂)으로통고을하엿다는대병중에 고독함을 비관하고 그와갓흔 참극을이르켯다한다

平北道當局에서 碧潼災民救濟

【碧潼】 벽동군하에 수해리재민구제에대한상황은 루루이 보도되엿거니와 금번에또 도당국에서는 지난십칠일에 벽동군하리재민에게 구제금으로 류실가옥십오원식을 배급하엿다는데 그총금액이구백구십오원이라고한다

古縣面事務所 移轉新築陳情

【南海】 남해군고현면(南海郡古縣面)에서는 금년에 면사무소를 개축하기로 결정하얏는데 현사무소위치가 정당치못하다 하야 전면구개동중 확개동이 중앙지에 이축코저 위원양재주(梁在柱)씨외 칠명이 도당국에 진정하얏다한다

二人組強盜 素沙에出現

【水原】 최근 수원(水原)시흥(始興)등각군에 강도사건이 빈발하야 경찰의신경이 극도로예민하여진 이때에 또다시십팔일오후열시반경에 부천군소사면조종리(富川郡素砂面○○里)괴수원에 한명은두른양복에 가방을지고 수건으로머리를동엿스며 또 한명은 배적삼에 맥고자를쓰고 밀집으로만든 노동모를쓴 두명의 괴한이돌연 나타나 밧갓마당에서 과원지이리영화(李榮和)(○○)를 불너내여 「요사이과실에약금을 밧은것이잇다는데잇는대로 내라」고 위협한후 「만약 우리들이 왓섯다는말을내면 네목숨을 그대로 두지안을터이니 그리알라」 당부하고 한푼도엇지못하고 유유히 자최를감추어 버렷슴으로 게출에 의하야 소관 소사주재소(素砂駐在所)에서는 즉시 인천서(仁川署)에 보고하는동시 수사망을 펴고 목하범인검거에로 력중이라한다

千二百年前佛像 宣川南面서發見

【新義州】 평북선천군 남면 문사동(宣川郡南面文四洞) 고광두(高光斗)는 약일천이백년전이라고 생각되는 놉기 녀자두치의 금이 호화된 불상한아를 팔려함으로 그곳경찰서에서는 수상히생각하고취조한결과 그불상은 소회이변구원경 그곳 고신배(高信培)가 집을새로 건축하면서 뒤스산 봉수령(烽燧嶺)에서 온돌석을 채취하다가발견한것인데 소회칠변 전긔고광두에게 준것이라한다 고광두는 이를 팔려고 하다가 경찰에 발견된것인바 경찰서에서는 천연고적보존규측(天然古蹟保存規則)에의하야 이를몰수하는동시에 총독부에 그감정을의뢰하얏다한다

露臺가문허저 人夫二名落傷

【元山】 지난 이십일일 오전구시반경 원산우편국(元山郵便局) 증축공사장에서 긔초작업중 이십여척이나 되는 로대가 문허저서 그로대우에서 일하든 김모(金某)(○)리모(李某)(○)의량명은 항내(坑內)에 떠러저서모다 상당히 중상을 입엇슴으로 즉시 전전(前田)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고한다

南京軍官校事件 被疑者三名送局

治安維持法違反으로

【江西】 평남 강서군 수산면 가생리(江西郡水山面可生里)에서 청년십여명을 돌연검거하야 이래엄중취조 한다함은 긔보한바 와갓거니와 그동안 월여를 두고 강서서에서 검거압송하는등 대대적으로 활동하든바 취조가 일단락을지어 지난 이십일일에 그중세명만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건서류와가티 평양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는데 씨명은다음과갓다한다

崔發柱(○) 崔增柱(○) 崔明信(○)

警官이라詐稱하고 船客의金品強奪 有力嫌疑者指名手配

【新義州】 지난십칠일밤 열시반경 평북창성군(昌城郡)읍내 남문밧 압록강상에 정박하고잇든 고리선비처에 돌연괴한 한명이 나타나서 (나는경관인데 너의네에 림검을 한다)하고 배안에 잇는 륙건을 검사하다가 승객한명에게 달려드러 신체수색을 한다하고 그사람이 가지고잇든 만주국폐 륙십삼원을 빼앗아가지고 다라낫다 이신고를 바든 창성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수색한결과 그곳리봉규(李鳳奎)의 려인숙에 투숙하고잇든 신의주 마전동(麻田洞)선부 김창근(金昌根)(○)이가 그날밤열시경 려관을 나온후로 도라오지 안이함으로 이를 유력한혐의자로 인정하고 극력수사중이라한다

三人組強盜 楚山郡下에出現

【新義州】 지난 십칠일 오전세시경 평북초산군송면차령동(楚山郡松面車嶺洞)곽부 김상진(金尙鎭)의처 량씨(梁氏)는 남편이 버리를 나가고 혼자서 아해넷을 데리고 자든중 세명의 괴한이 나타나 동양합동광산(東洋合同鑛山)에서 돈이백원을 바다왓슬터이니 그것을 내이라고 협박하다가 돈이정말없다하매 괴한은 의롱을 뒤지어 현금이십이원과 금가락지두개를 강탈하야가지고 다라낫다 이신고를바든초산서에서는 즉시비상선을느리고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驚馬가小兒轢殺

【羅州】 지난십팔일 오전십시반경에 라주군산포면내긔리(山浦面內基里) 류방권(柳方權)(○)이라는 마차부는 라주읍내에와서 마차에다 양철을실고 읍내남문정(邑內南門町) 신덕순(申德淳)의 집압흘 지날지음에 뒤에 실은 양철의 소리에놀내인 전긔 류방권의말이 놀내여 뛰는바람에 전긔 신덕순의독자 대일(大一)(○)이란 어린애가 길가에서 놀다가 치여즉사하엿다한다

咸南管內林野開放 七萬三千餘町步

【咸興】 북선개척사업(北鮮開拓事業) 구역내의 림야를 일반에 개방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함남도내에서 개방할예정면적은 미간지(未墾地)일만사천오백륙십일정보, 목축적지 일만오천구백십오정보 기타 사만팔천팔십이정보 합계 칠만삼천오백오십칠정보라고한다

順川의殺妻犯人

平壤潛入說로緊張

【平壤】 젊은안해가 리혼을 주창한다고 안해를 산속에유인해 가지고가서 예리한 칼로 안해의목을찔라 죽인 순천군자산면 제일리(順川郡慈山面第一里)번계영(潘桂榮)(○)은 흉행후 산중에 뛰어드러갓스므로 순천서에서는 산을포위하고 수사햇스나 범인은 어느사이에 산을 탈출하여 동군사인면반송리(同郡舍人面盤松里)김윤한(金允漢)의 원두막에나타나 김인섭(金仁涉)을 맛나면 조켓스나 이야기를전해달라고 부탁하고갓다는 보고를접한 순천서에서는 또다시 동지에대를 포위수사중이다 그러나 범인은 이지점도탈출하여 평양에 잠입햇는지 모른다하여 평양서에서도 엄중경계중이다

西朝鮮蹴球大會 來廿五日順安서

【順安】 평남순안에서는 금번체육회를 창립하고 래팔월이십오일에본사순안지국후원아래에 제일회서조선축구대회를개최한다는바 각지방선수의 다수참가를바란다하며 주최측 선수들은 매일고 련을 무릅쓰고 맹련습을하여당일 대회의장관을 크게긔대한다고한다

그女子의一生 (189)

방랑편

春園 作 / 夕影 畵

유모가 아당이를 안고 홍씨방으로 들어온다. 정경부인이 뒤따라와서 며느리를 들여다보며,

「아가 네 아들 보아라 남편의 혈육이면 네 혈육과 마가티 생각하는 법이야」

하고 생각하는 법을 명령하엿다.

시어머니가 들여다 본것을 보고 며느리는 허리를굽힌것도 이저버린드시 벌떡 일어낫다.

「웨 일어나느냐. 어서 누어잇거라」

하고 시어머니는 정답게, 말한다. 시집온지 이십여년에 입속한번도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본 일이업는 홍씨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본종으로 며느리가 미운적도 만앗지마는 속으로는 내며느리밖에업다고 생각하지아니치못하는 그다. 그 며느리가 손자를 나하주라고 저처럼 고생을 하는것이 불상하다고 생각하엿다.

홍씨는 일어나서 유모가 안서 낫기럽도 아니하고 입을내어물면서 젓을 찻앗다. 홍씨는 까마케된 제 젓꼭지를 한번 물리는것이 또한 제 의무인것을 생각하고 손으로 제 젓을 잡아서 어린애에게 물렷다. 어린애는 다리를 버둥거리면서도 조아라고 그 젓을 빨앗다.

「아이 어쩌면 이 애기가 도모지 다른 사람의 젓은 안먹는데」

하고 유모가 아첨겸 놀라는빗을 보엿다.

「핏줄이 켕긴다는게야 어미를 알아보는게지」

하고 정경부인은 며느리가 하는 입에 크게 만족하엿다 그래서 서성서성하면서

「다 조상님 덕이오 또 네 복이지. 인제 네가 아들이나 나흐면 그런 경사가 또 잇느냐. 김씨문중에 꼿이 피는게다」

하고 이빠진 입에 웃음을 갓득 담앗다.

홍씨는 배아픈것을 참다참다 못하야 어린애를 유모에게 주고 온 어린애를 밧아서 껴안엇다. 그리고 귀여운드시 머리를 만지고 볼기짝을 또다거렷다. 비록 속에서는 형언할수업는 감정이 뭉시결을 처서 무엇에 놀란것모양으로 떨리기까지하지마는 그래도 이 아이는 사랑해줄 의무가 잇다고 그는 밋는다. 자긔는 어머니오 이 아이는 아들이라고 밋는다.

이러케 제도에 순종하는것이 일생의 습관이 된 그에게는 그것이 그러케 어려운 일은 아니엇지마는 그보다도 남의 집 장손며느리로 아들을 못 나핫다는 책임감이 그에게는 가장 무거웟기때문에 남편의 아들이라 이것을 아들이 생기는것을 진정으로 기다리지아니치못하엿다. 아들을 못 나흔것이자긔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수잇지마는 그래도 남편에게 소박을 맛게된것이 제 책임이오, 비록제가 무엇을 잘못하엿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제 전생의 책임이라도 되다고 생각하는 홍씨다. 홍씨는 이러한 옛조선의딸들의 덕행을 학자님이라고 존경을 밧던 그 아버지와 현부인이라고 일컬음이 되던 그 어머니에게서 배와서 일생을 지켜온것이엇다. 소학, 효경, 오륜행실만을 배호고 학교人물을먹지아니한 까닭이엇다.

어린애는 홍씨의 품에 안겨엇다.

「어서 드러누어라. 그리고 얘 약 먹어야지. 녹용 다린것 어찌 되엇느냐. 애기 나키에는 젓먹은기운까지 다 든다는데 약을 먹고 또 밥도 잘먹어야 한다」

하고 정경부인은 안방으로 가버린다.

산파가,

「어서 드러누으세요」

하고 홍씨를 안아누인다. 홍씨는 고통을 참노라고 이마와 코스등에 구슬 땀이 매친것을 산파가 까제조각으로 씻기며 속으로 홍씨의 참는 힘과 예절다운것에 놀랏다.

식전부터 비롯는 아이가 밤이 되어도 낫지아니하고 산모의 고통만 시각시각으로 더하엿다. 애기가 거꾸로 안즌것이나 아닌가, 어떠한것이나 아닌가 하고 산파가 산모의 정경을 보다못하야 사랑에 와서 대령하고 잇는 의사에게 때때로 보고를하엿스나 대감이 의사더러 들어가보라는 말이 내리기전에는 그리할수도 업서서 의사는,

「좀더 기다려보오」

하고 담배만 피우고 잇섯다.

홍씨는 약다린것은 먹엇스나 점심도 저녁도 뜨는체만 하고는 넘어가지를 안는다고 먹지를 못하고 밤이들어서부터는가끔 줄기를 시작하엿다.

姉妹品 (七色) 固型 タンゴドーラン

純良無鉛, 芳香優雅, 白粉가 흔들니는數가업고 粉末이飛散치안코 손쉽게아름답게化粧이되는다 定價(各色一個)·六〇

TANGODORAN

タンゴドーラン七色 얼골빗에따라서 一層어울녀게되는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하연분에는……白色
얼골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거문분에는……早晚色
얼골창백한분에는……爽健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舞蹈的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個)·五〇 海外郵稅及送料加算

거울의 疑惑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百貨店·藥局·洋品店·化粧品店에잇소

日本總發賣元 株式會社風島メール本舖 東京·大阪

映畵俳優는 어째그러케어엽붑닛가

그것은化粧料를잘選擇한까닭이지요 여러분도참조흔化粧料를 쓰시면얼마든지마음대로어엽버집니다 요지음탕고도ー란은 映畵女優와新女性間에白熱的好評을博得하고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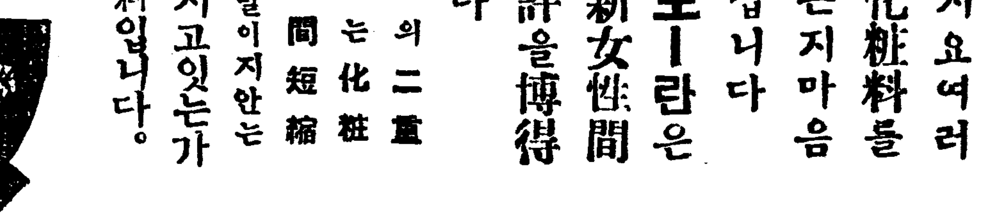
白粉과크림의二重作用、魅力잇는化粧効果、化粧時間短縮 絕對로化粧이밀이지안는

四大特長을가지고잇는가장進步된化粧料입니다。

天賦의福音 皮膚病에 꼭쓰지안흐면안될 (무도·한분)

六一〇ハップ

皮膚病이 가장잘낫는다고 天下에高評을바든 六一〇ハップ는 化學의進步에따하야 完成된貴重藥劑한特許新藥입니다



六一〇ハップ의特徵

皮膚病으로근질근질가렵고, 알코잇은 無數한病菌이 寄生繁殖하야 活動하고잇는까닭입니다.

六一〇ハップ는

△皮下深部까지잘浸透하야 病疾인이런皮膚病菌을顯著하게殺滅식히는 作用을가지고

△體內에잇는毒素를體外로 排出식힘으로病源을根本的으로驅逐하며

△身體에自然的으로 賦與된疾病을自癒하는機能을活潑케促進식힙니다.

그럼으로이런三大作用이相俟하야서迅速하게疾病을根治하는것입니다。

근질근질가렵고, 옥신옥신알코, 터러운고름이흘는 不快한皮膚病에는只今곳……

六一〇ハップ를試用하시면直席에見効

모기, 벼룩, 빈대물린데도即効

△主治効能

옴,무좀,음부습진,마른옴,腫氣,땀띠,其他皮膚病,痔疾,胃腸病,婦人病,神經痛,

◉洗面에二三滴쓰시면얼골의살결에 潤이나고고와지며 ◉婦人에뒷물에도 만히使用합니다

◉沐浴물에너어쓰시면 血液循環을잘하고, 精神이爽快하여지고, 身體도더욱튼튼케되며 僅少한費用으로全家族이다 溫泉氣分을맛볼수가잇습니다.

藥은各地主要한 藥房에잇스며, 原液대로팔고잇스니몸에따라서쓰십시요、說明書에 詳細히적어잇습니다。

斯界의權威
婦人科 川地醫學博士推獎
皮膚科 長谷川醫學博士推獎
內科 綱田醫學博士推獎
小兒科 森醫學博士推獎

發賣元 名古屋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八月二十二日밤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입니다 낫一時 밤七時半 始映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映畵 人情活劇 乘合馬車 全九卷 監督 죤포스터氏 主演 리차드크롬웰氏 名劇中에도名劇乘合馬車本館의上映見失치마시라

大都映畵社超大作映畵 喜劇 女房大進運 監督 吉村操氏 主演 藤間林太郎氏 春水麗子孃

유니버살社特作品 西部活劇 珍案特許美顔術 六卷 監督 리-브스이송氏 主演 후트깁손氏

豫告 撒水車 벤가르의槍騎兵

麻浦桃花洞 電話 一三三 桃花劇場

八月二十二日부터特別大公開! 晝夜三回興行! RKO超特作全發聲日本語解說版 原作 루스로-스氏 킹콩의復讐 監督 아-네스트·쇠드삭氏 主演 로바-드암스트롱氏 헬렌·맥크氏 驚奇味와怪異性의絕頂! 廿世紀驚異의一大怪奇活劇 大都映畵社超特作大雄篇

空飛ぶ痛快玉 大江秀夫監督作品! 阿部九州男主演

大都映畵特作連續時代劇 勝見正義一生의苦心의大作 名金 奇襲淺間山麓の卷 主演 阿部九州男 助演 木下雙葉 東龍子 藍苑麗

豫告 朝鮮最大의豪華陣! 中央三回大公演之期待!

觀光三九五 優美館

八月二十三日낫부터特別封切 每日三回 午正十二時半三時 入場料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노만·타우로도監督 娘結婚症 구레시아렁 죠지반스 共演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鬼才밋지엘나일센監督 나의안해를보라 실비아시드니主演

人間에참마음은人種國境을超越하고 사랑大小이면서도그이러나는참사랑은話題를만든다 波亂은米國貴族에青年과小麥色에이안에女子에話題이니 無事할수업는 거리여넌파리니이것은米國貴族社會에異色篇 名花실비아시드니孃名作

仁寺洞 電話 光二三六二 朝鮮劇場

はれやか 一服智謀百出

罐中의丸厚紙一枚로훌륭한大景品進呈

一罐 廿錢

齒磨는 一濕氣와香味가 第一훌륭한 專賣特許의 仁丹의半煉!

運輸改選問題로 商議에衝突惹起

戶島京城商工會議所 副會頭는 副會頭就任以前인 數年前부터運送界에 君臨하야 京城運送業者의 合同 京城運送業者의 四個團體를 統合하고 朝鮮에 對抗키爲하야 朝鮮運送業界가 되며 [illegible] 運輸를 反對하하고 年前 鮮滿運輸株式會社를 創立하야 荷主와 非合同運送業者의 一部로서 株主를삼어 創立하얏스나 朝鮮人의 非合同運送業者로서 組織된 計算會社인 朝鮮運輸計算株式會社(鮮人側計算機關)와對立할뿐으로 戶島氏의計畫이 조곰도 進捗되지안음으로 戰法을 고치어 朝鮮商工會議所總會를 機로 運輸問題를 提案까지 하라다가 되지못하고 相當히 困難하든가 이기고나서 朝鮮商議로하야금 各地商工會議所에 運輸改善問題에對한 回答을 모으게까지하기에는 成功하얏스나 各地의 意見이區區不一하야 或은 現狀維持를可라하고 或은 漠然히 改善하자하며 或은 別로意見을 提出치안는等 要領을 엇지못하고 最後로는 기는 京城商議이엇는데 賀田商議會頭로서도 이問題에 對하야서는 그러치 안나고 다만 副會頭인 戶島氏와 그一派 議員과의 個人關係其他로 不得已 好意的 態度를 보이기는 하여야겟스나 그러타고 戶島一派와 關係업는 一般議員들의 意思를不拘코 戶島氏一派의 目的대로 會議所로서의 意思的態度를 決定할수업는 형편에 빠저서 賀田會頭와 立場이 困難하더니 二十一日에 열린 運輸改善協議會의 議員總會 席上에서 드되어 戶島氏一派인 關根議員의 正面攻擊(別項參照)이잇서서 波瀾까지 잇다가 간신히 原案(消極的改善意見)이 通過되기는 하얏스나 問題는 이에 止치안코 一部議員에 依하면 就任以來 精勤하든者로 實績을보인 賀田會頭의 心境變化까지 생기게하야 十一月改選期를 機로 引退하리라할까지 잇다하며 戶島氏에 對하야서는 前로 成果가 업슬 運送問題를 가지고 各方面에 波紋을 이리키는것보다 眞正으로 運送界를 爲한것이라면 自己는 이問題에서 손을 떼이고 非合同側 卽丸計와 丸丁의 大同團結을 期圖하야 純然한 計算機關으로서 强力의 運送會社를 만드러가지고 朝運에 對抗하게하는것이 賢明하리라고 批評하는 사람이 만흔모양이다。

간신히 原案通過
商議總會紛糾

京城商議의 運輸改善者中案은前日 役員會를 通過한 原案이니 만치 二十一日의 議員總會에서 一瀉千里로 付託할豫想이엇든바 劈頭부터 關根議員으로부터 이案은 漠然한 空論으로 贊同하야 結局有耶無耶로 終止하는것이니 本原案에 對하야 贊成할수업다고 反對를 하야 檢討에 더 도 論議를 加하여야 된다하며 會頭와 그러한 餘地가잇스나고 同一하게 要求를 하며 賀田會頭는 本答申案은 合理的案이라고 밋고 잇스므로 이 改善에 對하야 贊成하야달라 要求하며 十分實效를 거두도록 [illegible] 努力할것으로 今後 該運動에 對하야 十分實效를 거두도록 努力할것으로 全會의 一致한 贊成을 求한다고 對하야 田村議員으로부터 다시 說明을 要求하야 [illegible] 戶島議員 亦是 本案은 荷主의 立場도 잇는 것으로 도 運送業者의 立場도 잇스나 會議所의 議員의 [illegible] 贊成하는것이 一致하야 吾人은 [illegible] 다시 贊成하기를 우리 議員은 어데까지든지 [illegible] 要求하야 讓步하지안코 賀田議長은 一時 休會를 宣言하고 再開하야 紛糾를 演하얏다 그러고 再開劈頭 議長이 [illegible] 關根議員은 前日의 意見을 撤回한後 [illegible] 全會一致로 原案을 通過하엿다

鑛業朝鮮

昨年各種鑛産總額六千九百萬圓
比前年四割三分의大激增
産金額四千百萬圓

總督府鑛産課調査 昭和九年中 各種鑛産總額은 六千九百萬圓에 達하는바 前年 四千八百萬圓에 比하야 四割三分 卽二千百萬圓의 激增이며 그中 産金額은 四千百萬圓으로 總鑛額의 六割八厘를 占하엿다 그리고 金價는 瓦當 三圓十錢인데 前年 二圓五十錢에 比하야 一割二分四厘의 騰貴이다。그런데 以上 鑛産額의 增加原因은 여러가지를 들수잇스나 金價의 暴騰을 비롯하야 諸種鑛物의 騰貴及 現代的設備에 依한 鑛業經營의 增加等이 主要한原因이라한다。

今年의棉作豫想
一割二分增收?
主任官會議에서報告

二十二日부터 總督府에서 開會된 各道棉作主任官會議에 今年棉作狀況報告가 잇섯는데·旱害로因하야 苦하는 全南은 木浦를中心하야 六郡이 가장 不良하며 同地方은 一割의 減少를 豫想하나 其他의 郡은 良好하야 二割의 增收를 豫定이어서 全南은 平均一割의 減收를 豫想하며 其他의 各道는 大體로良好하야 京畿 江原兩道는 가장 急速이 進行 慶南北 黃海도平年作以上이다 右報告를 基礎로하면 前年에 比하야 全朝鮮平均一割增收가確實하다 또作付反別에 잇서 一割이 增加되엇음으로 督收量으로는 二割一分의 總收量을 豫想하다

百五十萬圓增加하얏다 이는 煙草耕作과 製造施肥及 煙草購入代의 增加等이고 따라 此等의 人件費及施設費의 增加에 依한結果이다 그러나、카이다、銀河의 三種五十本入罐入으로하야 發賣하는 新刻煙草의 包裝을 곳치기로되어잇다

煙草小賣行政上의 新施設로서는 今回 煙草小賣人 六萬五千人의 統制를 圖하야 財團法人으로서 煙草小賣人 協會를 組織하기로 總督府에 對하야 認可申請하얏는데 認可를따라 九月初旬에 創立總會를 開催할豫定이다

棉花共販適否는 農村利害에 큰關係
矢島農林局長訓示

棉作主任官協議會議는 二十二日午前八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矢島農林局長 統裁下에開會 矢島農林局長의 左와如한要旨의 訓示가잇섯고 協議에드러갓는데 會議는 二十四日까지三日間 續行되리라한다

農林局長訓示要旨

前略 棉作獎勵는 朝鮮農業의 極히 單純粗笨한 經營을 多角形化하야 써 農家收入의 增加를圖하며 窮迫한 農村의 振興을圖하기에 極好한것이다 그리고棉花의 增産은 조금도 他作物과 가리 供給過剩에 빠질 念慮업스며 도리어 不足한 量 多少 原料國內에서 供給하게되야 國際貿易改善에 至大한好影響을 주는것으로 大한 意義가잇는것이다 本會의 協議는 主로 棉花販賣에 關한 事項인데 大體 그 獎勵는 生産의 獎勵와 統制잇는 合理的販賣의 供行에 依하야 비로서 獎勵의 成果를 엇게되는것이다 그리고 販賣方法의 適否는 直接農村의 利害에 至大한 關係가 잇는것은 勿論 이 方面에잇서서 買收機關의 興廢에 影響되는것이 만흐므로 그改善刷新을 加할必要가잇다

丁抹中央銀行 公定利率引上

【電通코펜하ー겐二十一日發】丁抹中央銀行은 二十一日公定割引步合을 一分引上하야 三分五厘로 改正發表하얏다

專賣局豫算 五千二百萬圓
安井專賣局長談

安井專賣局長은 來年度豫算其他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來年度豫算은 兩日中에 決定될터인데 總額은 約五千三百萬圓程度로 前年에 比하야 約一

金密輸依然旺盛
末報告取引多量인모양
地金職工國境方面集中

市中地金市勢는 朝銀의 買入價十一圓五十一錢二厘五毛에 對하야 十一圓五十二錢으로 鉏附한채 不動하야 市中取引은閑散한대로 推移하고잇다 이 反面에朝銀에의 持込은 三月以來漸增하야 六、七月로特히만허 七月은 一千三百三十키로(三百五十貫)의持込이잇섯스나 八月에入하야 依然減少하게되엇다 市中取引이 極히閑散한 反面에 朝銀에의 持込이 意外로 적음은依然 潛行的密輸가 잇슴을 말하는것으로 密輸目的의 末報告取引은 十一圓五十錢乃至 十一圓六十錢으로 主로 平壤方面에 輸送되고잇다 그리고 末報告取引의 要請에 對하야 一流地金商은 이를警戒하야 拒否하고잇슴으로密輸는 그만큼 減少하고잇스나 一方地金細工의 職人이 漸次國境方面에 集中하고잇다 그實은末報告取引과 密輸의 關係를 말하는것으로 斯界의 問題로되어잇다

倫敦金塊市勢 遂七磅臺割
匁換算十四圓廿七錢

倫敦金塊市勢는 前落步調이더니 二十一日入電에二十一日市勢는七磅十九志十一片二分一로 떠러젓는바 이 것을 一匁로 換算하면 十四圓二十七錢이엇다 六磅臺의 關門이 깨어저

米券受渡制度 廢止申請
東京米取에서

【東京電話聯合】東京米商取引所에서는 現行庄內米의 米券受渡는 取引을 不圓滑하게하는것이라하야 그廢止를 二十一日 主務省에 認可하여달라는 申請을 하엿는데 商工省에서는 米券受渡制度는 理想的制度임으로 그의廢止를할必要가 업다고하야結局不認可가 될모양인데 또米商들은 右廢止申請理由에對하야 如

新穀期까지에 輸送不安除去?
關係三局會議結果

朝鮮米 輸送根本對策樹立의 三局會議는 棉作會議終了後 再開를 보게되엇는바 昨二十一日의 協議會에잇서 總督府는 小異를버리고 朝鮮米輸送의 大局的 立場에서來 新穀期까지에 右紛糾의 解決에進出하야 朝鮮米輸送不安을一掃할것에 意見一致를보아 右具體策에 對하야 再協議할 豫定인데 有賀殖銀長은 二十二日午前十時半 總督府에 穗積殖産局長을 訪問하고 同問題에 關한 協議를行하얏는바 期待되든 總督府의 裁定出馬는 三局會議에依하야 드되어 具體的動向을 示하게되엇다

左히聲明하엿다
米穀取引의 受渡는 將來產地에在庫한채 米券으로써 取引하는것이 理想的이라하며 本省이 庄內米券受渡制度를 採用한 所以이다 그런데 實施後의 實情에鑑하면 그制度가 잇기때문에 도리어 實貨에 不圓滑을 生하야 取引에 不便을 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情勢에잇서서 各銘柄米에 對하야 普遍的인 米券制度일때는 모르거니와 一銘柄만에 對한米券制度는 各府縣米와의 格差의 動搖를 크게하며 格付를 紊

農村工業으로서 絹織이合理的
商工課에서獎勵方針

工場工業進展과 朝鮮內農村工業과의 調整에對하야 벌서부터總督府商工課에서 硏究를 進行하야 農村에 如何한 工業을 獎勵할것인가를 調査中이든바 在來工業、紙、綿織加工、陶器等에 絹織機工業振興이 가장 合理的이라는 結論에 達하얏다 絹織은 朝鮮에 原料가 豊富하고 原料에서 製織完了까지 農民의 餘暇에 할수잇고 機械工業으로서는 到底할수업고 朝鮮內農村에 不足한 動力도 不必要하다 現在 右機業生産은 約一千五百萬圓에 達하야 獎勵如何로는生産의 激增을 보아 滿洲方面並中國에 輸出도 開拓할수잇다 商工課에서는 右의 指導獎勵로産業組合의 活動을 促하고 反面 共同作業場의 設置補助等의 方策을 講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絹織外 흥스펀等도 調査中이다

政府米買受申請

【東京電話商通】二十一日公定高價에 依한 政府米買受申込은 大阪二百五十六俵 神戶二百十五俵로서計二萬二千四百九俵로되엇다

鴨綠江流筏蒐集

鴨綠江出水에 依한 流筏被害에 對하야서는 滿洲側은 採木公司朝鮮側은 産業組合이 各被害者의 依囑을 受하야 流筏蒐集作業의 中心이되어 下流沿海에서共同作業을 하고잇서 朝鮮側은比較的 順調로 되어나가는 模樣이나 通信連絡困難으로 詳細는 不明한바 作業은 九月末까지걸릴模樣이다

東拓配當復活在近?

東拓會社 今期一般業績은 米價高及一般財界의 好轉으로因하야 總收益은 前期보다 增進되엇스며 一般收益 四千萬三千圓이 增加를示하야 業務收益 二百二十五萬圓에 達하야 拂込資本에對하여 年一割二分八厘弱의 收益率에 該當한 好成績을 어덧는데 貸倒損失金 百四十八萬餘圓을控除하면 結局七十六萬餘圓의 純益을보앗다 그中에서 定款規定의 三十四萬餘圓을 政府補給金返却에 充當하고 他로法定積立金、後期繰越金으로하야 社債의 硬化를한다하며 同社가 期마다 躍進的 收益增進을 보고잇는 現狀에 微하야 將來를 展望하면 對米穀市의 卅九弗程度安定과 米價其他의 好況持續에 依하야 社運의 更正 配當復活도確實하지안어서 實現을할可能性이確實하다고한다

鉛、錫關稅引下

【電通倫敦二十一日發】英國大藏省은 二十一日 鉛及錫에 對한關稅引下를 發表하야 鉛에對해서는 從量七志半、從價一割、또錫에 對해서는 從量十二志半、從價一割中 어느것을 採用하야賦課하기로 變更하고 來八月二

乱하기때문에 特히 實方에 意外의 便利를주는 制度가되며 米穀人에 對하야 米券受渡制度가 不圓滑케한다 不合理이 아니라 行하지안는 이 때 東京米穀取引所의 公正을 期하기 爲하야 一時 이 制度를 廢止하려는것이다

今日財界 (十二日)

◆米 (京城正米)
仁川期米 先限 三二、三〇 前日比 四〇低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市中金塊價 一匁 十四圓二十七錢
◆株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ゴム 現物 [illegible]

商況 二十二日

株式 新價後에 一息

前場續騰 昨後場東京株는 外電이 好轉하야 今前場은 米弗八分七으로 高米價에 大丸四十四圓八分七厘로 高値에 金塊低의 場氣이나 買氣가 强하야 東新은 百四十三圓七十錢 新高値 東新五十錢高 日産도 七十錢高 東新 日産 共히 好勢이다가 結局後引에 比하야 鐘紡은 百四十二圓十錢 日産 三十錢 七十錢高 大新은 二十九圓三十錢 各大引 高인 八十九圓十錢 朝新三十錢高 帝人은 百二十六圓十錢에 各大引 十錢 日鐵新은 百四十一圓八十錢 日石 十錢 四十一圓十錢 鐵管新四十四圓八 十錢 拓新十一圓四十錢 三菱 新六十圓

▲東新 四二〇(新) 四一五(新) ...
▲日産 大大〇(高) ...

後場一息

後場은東新百四十二圓八十錢 日産七十七圓六十錢 大新八十八圓五十錢 朝新二十五圓九十錢에 少押하고後一息裡에 大引

新高價로續騰

二個月동안 보지못하던 東新百四十圓臺回復으로써 跡行市勢의 前途를 明朗하게 하는 것이 事實이라고 日中親善이 정말實現된다면 日本經濟의 大轉換으로서 不況은 除去될것이고 滿洲國이 一段發展하면 去益可라하야強氣는 어데까지 秋高의 前哨戰을 맛친 本鄕한 感이 잇는 이나 이에 注意할것은 東京東新이 六月의 最低價 百三十一圓七十錢에서 今前場 百四十四圓二十錢까지 十二圓五十錢 戻를 示하야 이東新 高로서 最後로하고 諸株의 前上이 一巡되어 下向일것인지 또는 第二段의 上向을 迎할것이지 情勢注視가 必要하얏다

當限落까지의 壽命일가?

株界는大體에잇서 過去一年間의 實思惑이 流行하얏던 淸算期에 當面하고잇는터로 從前 軟派의 買目標가되엿던것일수록 高하야 말하자면 實方이 올닌市勢이오 新規買에 依한것이 아니라할수잇다。現在의 當限은 低價時代의 思惑의 紀念塔이엿스니 强弱의 利害關係가 顚倒된 今日에잇서는 賣方에게 不利 한것을 否認할수업슬것이다。 이러한 仕手關係로부터 온市勢이니만치 當限落까지는 모르겟스나 今後動向을 決할 材料로서는 生絲市勢가 奈邊에서 落着될것인가?설령一步新高價는 躍進하야 株高에 拍車를加하게될지라도 持株側의 實繁가 相當히 나올것인즉 大衆이 追隨하던지 今後의高價는 買方이 하던지에「구로도」를警戒함이 賢明하리라는말이잇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四	五五	五三、九二〇
東新	四一	五〇	八一、二九〇
大新	三〇	五九	七六、七四〇

期米 買意不振 續落

前場小押 昨後場 阪地二十三圓三十一錢止와 共히 二十八圓四十五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三十錢인 六丁反高를 聽하고 二十八圓四十八錢인 三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三十二錢까지 小强하엿다가 結局 三十四錢에 止場을 伴하야 四十錢을 最低로 四十一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續落

後場은 二十八圓四十錢에 一丁低로 始場後 三節三十一錢에 떠러지고 四節三十錢으로 別欄가티 止場하다

在米漸次枯渴
需給不安益甚

定期界에서는 벌서부터 端境期의 供給不足을 豫期하는同時에 渡米의 蒐集이 如意치못하리라하야 大槪 當中兩限을 買占하고 最後一戰을 決하려하는 形便이고 正米界는 持米側의 態度가 終始 되고 先限은 時日을 經할사록 두만큼 結局 低落途程바게업시 日本內地及 朝鮮共히 違作說이 擡頭함에 딸아 比較的 强味를 添하게됨으로 畢竟은 三期의 稍漸縮朝를 見하게될모양가다。그러나 正米의 市勢가 依然高價를 維持함으로 當中兩限의 深入落은 許하지안을것가다。

市場六感

株
今前場東京東新은百四十四圓二十錢의高價가잇고 百四十二圓九十錢의 低價大引 이로서 高價一巡이고 關門鐵興일가? ▲株界에잇서 가장큰 念慮는 增稅이엇데 蔵相의 『時期尙早』言明으로 人氣는 一層明朗해진모양▲그런데 이에矛盾이 不無하니 諸事業은 依然繼續되면서 赤字公債 漸減方針을 取한다면서 增稅를 斷行치도 안코리라하니 대체 무슨돈으로 메꾸어가려는지?▲재조만흔 藏相이 있는지?

米
政府米 二百萬石拂下說을 機로하야지 굴러떠러지지나마소 翁 너무재조부럼다가 댕굴댕 토록 가리키어 주오 ▲遞團라 國民一般 살님에도 適用 거던 政府서만 할것이 아니가 무어인지? 그런法이 잇도 안거두고 도마찰쏘는 재조는모르나 빗도 안것고 稅金라 曲藝數番으로 잘해나갈지

當中稍漸軟化
新規買皆無로

先限보다 一時 二百六十餘丁의 上鞘를 示하든 當限과 二百十餘丁의上鞘를 示하든 中限은 昨今에 入하야 更伸할餘力이업시 稍漸軟態에 傾함에딸아 當先과 中先의鞘는 依然 二十餘丁의 鞘를 示함에 至하엿다。要하면 新市場이 發會하든 當時에는 當先은 百八十六丁의 開鞘 中先은 百三十九丁의 開鞘이엇슴으로 境遇에 依하야 原狀恢復은 될것갓다。實로 昨今의 米界情勢를 綜合하여보면 當中兩限은 絶頂에 達한關이 엇지안엇원악 結局 低落途程바게업시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六九三、二六五

一贊으로 實情이라기보다 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이 벌서八百萬石을突破하고 朝鮮의在米는 極度로 稀薄하야 政府의拂下가 잇기外에는 前途供給의 一大支障을 일으킬모양이다 實로 仁川의在米狀態를 見하건대 政府米를 除하면 民間米는 僅히 四萬石에 不過한데다가 就中 精米所의分이 多함으로 結局 大恐慌時代가 到來할것도갓다 그런데 政府는 朝鮮의官有米를

各地正米

京城軟化
賣物薄이나마 定期의 氣迷로 氣配十錢 軟化인 丸仁三等三十圓六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仁川下押
拂下米의 懷疑를 보고 態度依然히 不透明하야 期米의 當限低落을보고 氣配十錢下押인 丸仁三等三十圓六十錢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釜山閑散
東地出廻四六七俠所持는 强張인데 日本內地拂下米의 好勢行에 壓倒되어 荷動이極端으로鈍하고 强含데로保合이오 氣配不變인角圓三等三十圓七十錢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錢

大邱不變
在庫物은 거의定期關係의것으로 糯米不足이逐日深刻化하야 氣配不變이나마 强調를呈한 角圓三等三十圓丁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群山不味
拂下米에 壓倒되어日本內地實行이 極端으로不振이오 閑散場面이나마 賣物薄으로 市勢下遊인 ㊄三等三十圓六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木浦保合
所持側이거의 定期에 緊하고 産地出廻皆無로浮動米가적어 取引은 停頓狀態인 ㊄多靡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雄町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二圓十錢

堂島前場情報 (大阪電報)
賣方 中東側、地場鐵側、朝鮮正米側、買方 地場鐵側、朝鮮側、株式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南浦不動
當市의 市勢는 新市勢는 前市勢대로 推移되어 丸㊉鎭南浦의 三等三十圓三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錢

株式 廿二日

◆朝取短期
	前引	後引	高値	低値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七·八〇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東京短期

◆朝取期米 廿二日
◆大阪長期

金融 廿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米穀 廿二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廿二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카가豆期賣
◆鰯油冲價
◆鰯搾粕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株 福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一

米 期 福 吉村取引店 仁川本町三